

CCM 음악에 침투한 위험한 세상 음악

I'll be humble

소개글

목차

1	CCM의 발전사 (History)	4
2	CCM 이란?	5
3	기독교적 테마나 가사를 갖더라도 CCM에 포함시키지 않는 장르	7
4	찬송가의 분류 및 올바른 복음성가의 조건	9
5	한국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특징	11
6	CCM속에 침투한 사탄의 사상들	12
7	뉴에이지 음악 (New Age Music)	33
8	CCM 음악 까지 장악한 뉴에이지	36
9	CCM으로 둔갑한 뉴에이지곡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교묘한 사탄의 전략)	38
10	뉴에이지 음악과 사이버마약(아이도저)과의 유사성	44
11	1.뉴에이지(New Age)란 무엇인가?	45
12	2.환경운동과 뉴에이지(New Age)사상 그리고 배경이 되는 가이아 이론이란	48
13	3. 뉴에이지(New Age)의 기원 및 역사	50
14	4. 뉴에이지(NewAge)운동의 근원 및 역사	52
15	5. 뉴에이지(NewAge) 라이프스타일 및 음악	54
16	6. 뉴에이지(NewAge)의 철학 및 우주론	56
17	7. 뉴에이지(New Age)의 종교, 과학관	60
18	MR 제작 요청은 여기에서 하세요	62
19	주기철 목사님 그의 마지막 설교	64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History

I CCM History (CCM의 태생은 Rock과 Folk 음악)

- n CCM 이라는 장르는 공식적으로 1960년 후반 ~ 1970년 초반 “예수 음악(Jesus Music)” 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회복운동을 통해서 시작 되었으며 당시 60대의 반문화 성향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마약, 자유분방한 연애, 과격한 성향에 기반을 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겼던 히피들이 예수의 사람들(Jesus people)이 되었고, New Music 은 대중화 되었음
- n 1970년도의 “예수 운동” 은 크리스찬음악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관련 음악 산업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음이나 남부 가스펠 음악과는 다르게 이 새로운 “Jesus Music” 의 태생은 Rock과 Folk 음악으로부터 태어나게 됨
- n Rock 스타일의 Jesus Music은 점차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해져 갔고, 본래 Rock이 가지고 있던 과도한 리듬 역시 점차 정화되어(세련되게) 다듬어 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영향에 따라 이전의 (Rock이)세속적이었던 관계에 대해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음
- n “Jesus Music” 문화는 1980년대에 이르면서 multi-million-dollar 산업으로써 상업적으로 크게 성장되었으며 Amy Grant, dc Talk, Michael W. Smith 같은 많은 CCM 아티스트들은 라디오 방송에 Top 40 Mainstream에 들어가기도 하였음
- n 2005년도에 들어서면서 크리스찬 음악의 판매량은 classical, jazz, Latin, New Age, soundtrack music을 능가하게 되었음.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I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 n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혹은 Inspirational Music)은 대중 음악의 한 분야로서, 가사에 기독교의 믿음을 직, 간접으로 담고 있는 현대 대중음악의 한 장르임
- n 내슈빌(Nashville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industry) 기반의 팝, 락, 워십등 기독교 음악 산업을 지칭하는데 사용됨
- n CCM은 상업성을 갖는 대중음악이자 교회 안팎에 자유로이 사용되는 장르임

I CCM의 분류

- n 빌보드지에서는 “Top Christian Albums” 그리고 “Hot Christian Songs” 차트로 분류
- n Radio & Records지에서는 Christian AC(Adult Contemporary), Christian CHR(Contemporary Hit Radio), Christian Rock, Inspirational airplay 차트로 분류(포함)
- n 아이튠즈 (Apple iTunes Store)에서는 “Christian & Gospel” 장르로 분류(포함)

I CCM에 포함되지 않는 장르

- n 펑크(punk), 하드코어(hardcore), 홀리힙합(holy hip-pop)그룹,
- n 이들은 명백히 신앙의 문제를 다루나 이를 CCM이라 부르지 않음
- n 경건 및 거룩함과 거리가 먼 음악 스타일은 CCM이 발생된 본토에서도 CCM(크리스찬음악)에 포함시키지 않음

I 크리스찬 테마를 보여주나 CCM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음악가들

- n The Byrds(버즈), Bob Dylan(밥딜런), Van Morrison(밴 모리슨)
- n Elvis Presley(엘비스 프레슬리), Lifehouse(라이프하우스), rapper DMX(래퍼 DMX)
- n 위의 음악가 및 그들의 음악은 크리스찬 테마를 다루고는 있지만 CCM에 포함되지 않음

기독교적 내용 이라 할지라도 CCM에 포함시키지 않는 장르 (CCM 발원지에서도 CCM으로 분류를 하지 않음)

n CCM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Punk, Hardcore, Hip-hop 장르

사탄의사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뉴에이지 음악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사탄의 음악이라고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고 보여지는 범주가 펑크, 하드코어, 힙합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차지함

n Punk(Punk Rock)

u 1960년대 중반 미국의 로큰롤 (Rock & Roll) 밴드들에 의해 생겨난 장르로 최근에는 이런 밴드들을 개러지 록(Garage Rock) 으로 분류하기도 함

u 펑크 록의 특징

- |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거칠고 귀에 거슬리는 음색
- | 도어스의 반항적인 자세, 문란함과 자유 정신
- | 더 후의 추저분한 자세와 공격적인 악기법
- | 초기 롤링 스톤스, 스투지스와 엠씨파이브(MC5)의 폭력적인 공연과 정치적 대항심, 성적인 관심
- | 영국의 펑 록 Mick Farren, Deviants을 포함한 정치적인 영국 언더그라운드 밴드들, 뉴욕 돌스 (New York Dolls),
- | 데이빗 보위, 게리 글리터(Garry Glitter), 록시 뮤직(Roxy Music)을 포함한 1970년대 초 글램 록, 아트 록에 뿌리를 둠
- | 로커빌리 (Rockabilly), 레게 (Reggae)와 같은 음악 장르도 초기 펑크 록에 영향을 주었음

u 외형적 특징

- | 반항적이고 거칠게 뺨친 머리 스타일(모히칸)
- | 징박힌 액세서리, 가죽 자켓이나 체인 등이 펑크를 대표하는 의상

n Hardcore(hardcore punk)

u 하드코어는 Punk Rock 의 하위 장르로 1970년대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펑크에서 더욱더 과격해진 장르가 바로 하드코어 장르임

n Hip-hop(힙합-랩)

u 대중음악의 한 장르이자 문화 전반에 걸친 흐름을 가르키는 말

u 특징

l 음악적인 부분으로는 랩, 디스크자키(DJ), 비보잉, 그래피딩

l 엠싱(Mcing, emceeing)이라하는 랩은 전자음향, 비트를 배경으로 가사에 리듬과 강세를 실어 부르는 기술

l 대부분 4/4 박자로 구성, 다른 음악의 반복부를 이용하여 만들며, 다른 음악의 반복부를 구성하는 샘플링 작업은 DJ의 주요 기술임

u 갱스터랩과 웨스트 코스트 힙합

l 80년대 중반 부터는 갱스터랩이 강세를 보였으며 (갱스터랩은 폭력적인 젊은이들의 일상을 반영한 힙합)

l 90년도에 이르러서는 펑크 멜로디와 갱스터랩을 혼합하여 G-펑크 라는 새로운 힙합 장르를 만들었음

l 2000년도에는 주요 팝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음

찬송가의 분류와 복음성가의 조건

1) 찬송가의 분류

I 찬송가(Hymns)

- n 찬송가는 그 대상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을 향한 것임
- n 한국교회의 찬송가의 앞부분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들이 찬송가에 속함
 - I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등
- n 찬송가를 부르는 방법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경건하게 부르는 것이 올바름

I 복음찬송가 (Gospel Hymns)

- n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직접적 표현이 아닌 간접적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
- n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 하는 것
 - I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십자가의 피를 찬송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

I 복음성가(Gospel Song)

- n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며 전통적인 찬송과는 달리 주관적인 내용이 많고 사람들에게 권고하며 설득하는 간증적인 내용으로 간증과 권면으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
- n 목적면 으로는 '복음성가'는 '전도나 성도의 교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n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는 70%이상이 복음성가로 구성
- n 복음성가는 전기 복음성가와 후기 복음성가로 분류가 됨
 - I 전기 복음성가 : 19세기 태동된 복음주의를 상징하는 유명 찬송가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아 이작와츠 목사, 찰스 웨슬레 목사) / 미디와 생키에 의해 미국 전역에 꽃 피운 전력을 가지고 있는 성가
 - I 후기 복음성가 : 요즘 시대에 나타는 것으로 출처가 불분명 하며 세속 음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하여야 할 대상

2) 올바른 복음성가(Gospel Song)의 두 가지 조건

- n 올바른 가사 이어야 함

- | 성경적이고 교리적이어야 함 : 성경적이며 교리적인 면을 함축하고 있어야 함
- | 작자가 분명히 밝혀져야 함 : 복음 성가는 가사에 생명이 있는 것인 바, 작자의 분명한 신분이 밝혀져야 함
- | 신앙에 도움을 줘야 함 : 찬송의 생명은 바로 가사에 있으며 신앙에 도움을 줘야함
- | 문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함 : 찬양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임
- |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 함 : 찬양을 통해 주일성수, 성경읽기, 교회 일에 봉사, 헌신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야 함
- |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함

n 올바른 곡 이어야 함

- | 신앙인이 작곡해야 함 : 올바른 신앙인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
- | 쉽게 부를 수 있어야 함 : 대중성이 있는 성가이므로 누구든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작곡 되어야 함
- | 세속적인 형태가 제거 되어야 함 :
 - n 찬양은 거룩과 순결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기에, 세속음악과 같이 작곡된다면 그 가치가 하락될 수 있음
- | 세속 곡에 찬양을 혼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함 :
 - n 올바른 찬양이 없을 때에 성가의 가사를 세속 곡과 혼합하여 사용한 관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혼합곡은 근절 되어야 함 '가랑비에 옷 젖는 줄을 모른다'는 속담처럼 조그마한 일에서 세속의 것과 혼합되어지면 신앙이 세속화 되어지고 결과는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임
- | 가사에 알맞은 곡이어야 함. :
 - n 가사는 신앙 상태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그 가사에 알맞은 곡이 붙여져야 한다. 강한 호소력을 담고 있는 가사에 경쾌한 리듬으로 곡을 삼는다면 가사가 지닌 참된 의미를 전달 할 수 없기 때문임
- |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함

[출처 : 교회 음악의 위기 교회 음악 무너져 간다, 도서출판 흰돌], 이광복 목사

한국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특징

I 국내 CCM 문화의 정착

- n 1980년도 후반과 1990년대 초 Rock 음악을 기원으로 하는 문화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심했으나
- n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회 안에 정착을 이루었고 찬양예배, 집회 등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하며 기독교 위주의 교회 안에서 정착
- n 미국의 경우 기독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등 대중적으로도 큰 성공이 있었음

I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CCM 문화

- n 한국의 CCM 역시 80년도 후반부터 꾸준히 발전하여 찬양 문화가 급속히 발달
- n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CCM의 경우 기독교인 위주의 적은 음반시장 형성 (미국의 경우 기독교 사상에서 출발하여 세워진 국가이므로 CCM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있었음)
- n **열악한 CCM 음반 시장의 특성으로 전문 CCM 사역자만의 길을 걷기 어려움**

I 미국 본토에서도 넣지 않는 힙합, 랩 장르까지 CCM 범주에 포함시킴

- n 한국의 CCM의 범주는 미국 본토에서조차 CCM 범주에 넣지 않는 힙합, 랩 스타일의 곡도 CCM으로 사용

I **사탄의사상이 포함된 뉴에이지곡 마저 은혜라는 미명아래 도입하여 사용**

- n NewAge 원곡을 CCM에 도입 하여 사용 함 : 전세계적으로 **NewAge 원곡과 가사까지 그대로 사용 하여 CCM 장르로 분류하고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임 (대표적인 예: You Raise Me Up)**

무슨 MR 나눔방에 생뚱맞게 이상한 글이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악보나라에는 이러한 게시글을 올릴만한 곳이 딱히 없어서. 이곳에 MR나눔방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만이라도 제가 겪고 느껴보면서 음악 곳곳에 숨어 있는 사탄의 흔적들과 함께 신실한 사람들도 전혀 알지못하게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들을 보면서 이곳에서라도 함께 이러한 부분을 나누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크리스찬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찬양인도자 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탄이 더 크게 우는사자와 같이 역사하는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글을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MR을 더욱더 잘만들고 좋게 만들어 보고자 음향 엔지니어링 및 음향학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여러가지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가지 컴퓨터음악 하는 카페등에 가입하여 활동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음악이라는 매체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음악의 절정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사람이나, 밴드 그룹, 뮤지션등을 바라볼 때에 **궁극의 절정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 극단적으로 분류를 하자면..2 부류로 나뉘게 되는것 같습니다.

음악속에 무슨 사탄이나?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급 수준으로 배움의 지식을 넓혀가려고하니 자주 **사탄, 지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사탄이 음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특히나 음향/음악 쪽으로 심도있게 전문성을 요하는 잡지 등을 보려하니 곳곳에 새겨져 있는 **악마의 그림이나 사탄의 모습** 등을 보면서.. **마치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음악인 혹은 멋진모습등으로 현혹시켜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게 하며 또 이러한 음악관련 잡지들을 통해 자신은 모르지만 이미 사탄에게 빠져드는지도 모르면서 벌써 사탄의 추종하고 사탄에 빠져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자료를 찾다가 모 잡지 사이트가 있어서 가서 공부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려고 했더니 제목이 "**지옥의 MIDI Training**" 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처음엔 정말로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라 저렇게 썩어져 있나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클릭해서 다운받기위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받으려고 클릭을 하는 순간 다운받기 위해 그림을 클릭해야 하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래 사진 / 혐오스러운 부분은 지웠습니다.**)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아래 그림을 눌러서 눌러서 들어가야 하는데 마치 인간이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느낌을 받아서 더이상 마우스를 클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최근에 컴퓨터음악을 하는 자료를 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런데..무료로 번들로 제공되는 S/W 를 설치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사항인데 **보통 S/W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자의 제작의도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맨처음 설치해놓고 나서는 몰랐는데.. 나중에 재설치 하려고 하니.. 아래의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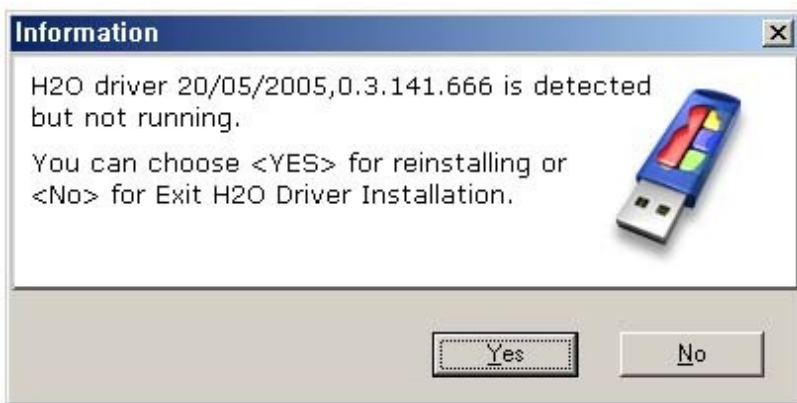
그런데 잘 보십시오.. (666) 이란 숫자가 버젓히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불법S/W를 설치했지만 알고보니 이 S/W의 배후에는 사탄의 의**

도가 몰래 숨어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값비싼 S/W 를 공짜로 쓴다고 유혹하여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은 사탄 숭배자가 만든 것이며 사탄의 표시(666)를 해냈다고 드러냅니다.

이렇게 Crack된 S/W 를 설치할때.. 나오는 메시지는 "Try Before Buy" 라고나옵니다. 좋은 말이죠! 사기전에 한번 써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음악만들어 돈벌때 사서 쓰세요 라는 메시지까지 남기면서요 정말 군침도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바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666 이란 숫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손과 이마에 말이죠.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불법 S/W 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사탄이 준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용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은 알면서도 666 이란 숫자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666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만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후 H2O 라고 씌어져 있는 불법 S/W 들은 모두 다 삭제했습니다만 .지금도 놀래서 속이 좀처럼 진정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최고 수준의 음악에 도달하게 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음악과 사탄에게 알게 모르게 영혼이 팔려 궁극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 두가지로 나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음악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사탄쪽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 보다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더욱더 많은 기도과 성경말씀 묵상과 교회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를하며 늘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감언이설로 명상을 이야기하여 , 명상을 하는것이 마치 최고의 경지인것 마냥 인간이 명상을 통해 신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또 모든 신들은 동등하며, 그러므로 인간은 명상을 통해 모든 신들과 동급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뉴에이지

그리고 그 뉴에이지에 빠져들게 만드는 달콤한 뉴에이지 음악들, 이 달콤한 음악들의 대부분이 가사가 없는 달콤한 곡들이 많고 이러한 곡을 들을 때 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한 음악만 듣게되고 그러한 음악속에 빠지며 자기는 스스로가 수준 높은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수준높은 사람이라는 착각 과 교만속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돌리는찬양을 멀리하게 하고 명상이나 스스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이러한 음악이 난 좋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고등부 학생중에 많은 경고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뉴에이지 음악에 심취하여 교회를 떠나는 학생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주변의 또다른 사람이 뉴에이지음악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몇년전 악기를 사러갔을때에... 악기 사용법을 가르치던 분께서 주말에 데모연주가 있다고 연습하던 곡이 뉴에이지음악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야니" 의 곡을 연습하고 있더군요. 그분도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이데 그것이 뉴에이지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연주한다는것에 놀랐습니다. "야니" 의 피아노연주와 곡 그리고 함께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소리는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 어떤 사람들이 들어도 참 듣기 좋고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매우 잘알고있는 "조지윈스턴" 의 캐논변주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뉴에이지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가사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음악으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달콤한 음악에 빠져들고 그런 음악만을 듣고 빠져들다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찬양과 음악들을 듣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결국 믿는자 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니의 곡을 연주하였던 데몬스트레이션 팀장을 얼마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분께서도 교회 반주자로 수년을 봉사했지만 그렇게 세상속에서 세상곡들을 연주하다보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떠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음악적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돌리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변에서 늘 이런 사탄의 계교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Kim_Kyung_Mi_Piano_Recital_Encore_Play_song_96K.wma](#)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MR 제작과 나눔의 블로그 http://blog.daum.net/paul_s

 [웅기사랑\(영균\)](#)

깊은 공감을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내용을 많은 크리스찬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성경이아버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네요.. 모르고 좋다고 듣는 음악중에는 결코 좋은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8.05.07 13:27

[답글 삭제](#)

 [소영](#)

옳은 말씀입니다.. 이젠 외면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또 세상것들과 싸우자니.. 우리의 아는 지식이 너무도 부족하고요.. 교회음악들이..얼마나 많은 부분 뉴에이지나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많은 곳을 자리내어주고 있는지.. 알면..정말 통탄할 일이지요.. 08.05.07 13:41

[답글 삭제](#)

[꿈꾸는자의소망](#)

그저 좋은게 좋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역시 찬양은 화려한 음악적 "기교"보다는 진실한 영혼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찬양의 목적과 이유가 되물게 되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08.05.09 22:03

[답글 삭제](#)

[☆주만보는아이...](#)

아멘 08.05.11 01:16

[답글 삭제](#)

[은은한향기](#)

교묘히 파고 드는 사탄.. 정말 무섭네요.. 하지만 그걸 몰르는게 더 무서울거 같네요. 늘 깨어 있어야 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것까지 ㅎㅎ
08.05.13 00:11

[답글 삭제](#)

[손님이랍니다](#)

맞아요.. 공감해요... 뉴에이지곡들 음이 감미롭고 좋지요..한때 유키구라모토의 연주에 빠져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근데 .. 정말 사람이 처지는게 우울증까지 생길려고 하더군요..무력감이라고해야하나... 그래서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때 첩으로 알았습니다. 음악이라는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다들 깨어서 조심해야 겠어요... 잘읽고 갑니다. 08.05.16 09:32

[답글 삭제](#)

↳ [성경이야빠](#)

뿐만아니라.. 오카리나 의 대가라고 하는 "소지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한때 국내에 "대황하" 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적이 있었지요 후 지TV에서 제작했던가? 했을겁니다. 그때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졌죠.. "손님이랍니다" 넘겨서도 느끼셨듯.. 사탄은.. 음악속에 빠져 우울증에 빠지게하고 자살로도 유도합니다... 자살은 지옥으로 가는 초특급행 열차와 같습니다. 08.05.16 10:10

[수정 삭제](#)

↳ [성경이야빠](#)

뉴에이지 음악은 판타지적이며 또한 서정적이면서 클래식한 분위기와 재즈를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듯한 특징과 듣는이들이 "참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소리며 곡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죠 08.05.16 10:15

[수정 삭제](#)

↳ [성경이야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준높은 음악을 제작하고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에 빠져들게 하고.. 한번쯤 발을 담게 만듭니다. 08.05.16 10:17

[수정 삭제](#)

[성경이야빠](#)

몇일 전 음악제작 카페에서 "지옥의 메커니컬 트레이닝"에 들어가서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고 글이 올라왔더군요..그분 글의 내용으로는 그곳에 올라온 영상이 인간이 아닐정도로 빠르게 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지 그렇게 노력해도 안되는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걸보고 다시한번 사탄은 이런 음악이란 매체를 통해서 너무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08.09.25 16:40

[답글 수정 삭제](#)

↳ [passion-n-love](#)

죄송하지만요~기타를 빠르게 치는 것과 사탄을 연관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네요~^^; 08.09.10 23:44

[삭제](#)

↳ [성경이아빠](#)

기타를 빠르게치는 것과 연관을 짓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통해 상대적 열등감을 통해 자살충동까지 유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08.11.05 18:32

[수정](#) [삭제](#)

 [wsch](#)

안녕하세요 성경이아빠님 제 막내가 성경이라 저도 성경이아빠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 카페로 스크랩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08.05.17 23:22

[답글](#) [삭제](#)

 [방송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느 것이 뉴에이지고 어느것이 그냥.. 경음악인지 경계선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지어야 할지도 참 ... 안타깝습니다. 08.06.14 23:40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찬양을 향상된다보면 자고 일어날때에도 찬양이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08.06.15 21:37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런데 찬양이 아닌 다른곡을 열심히 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곡의 선율을 따라서 흥얼거리거나,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08.06.15 21:38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세상음악은 거의 듣지않고 찬양만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8.06.15 21:42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80년대 중,후반 고등학교시절 부터 90년대 대학시절 Dance, POP, Rock, Metal 까지 장르를 넘어 참 많은 곡을 외워 부를정도로 세상음악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선별하여 분별하였던 것은.... 수많은 POP, Rock, METAL 그룹중에서 사탄을 추종하는 그룹이냐? 또는 가사에 그런내용이 들어있느냐? 를 분별은 하였던것 같습니다. 08.06.15 22:02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제가 고등학교시절 락그룹 스트라이퍼는.. 가스펠 락 을 한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요... 08.06.15 21:46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당시(80년대말~90년대) 부터는..뉴에이지가 음악의 한 장르로 분류가 되기시작하였고 드러내서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였던것 같습니다. (U2의 With or without you)이란 노래가 기억에 남는 노래중 하나네요... 08.06.15 21:48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런데 어느 순간.. 경음악, 세미클래식에 많은 뉴에이지의 곡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곡들은... 뉴에이지의 장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알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곡들이 참으로 많을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08.06.15 21:50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런데.. 뉴에이지곡의 공통점은 듣다보면 그 곡이 너무나 좋아지고 들으면 행복해지는것 같고.. 평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바로 함정이 거기에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 수록 평안하게 느끼던 곡에 의해 우울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폐쇄적이면서도 사람들과의 교제도 줄어가면서 자기만의 세상만을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08.06.15 21:53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렸듯... 믿는 사람이라면. 경음악이 뉴에이지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 보다는 세상음악보다 찬양(영상,음반,MR등)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일 것 같습니다. 08.06.15 21:57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가끔 회사 직원들 중에서 방향이 같아서 제 차에 타실때에는. 외국 찬양(힐송등)등을 틀어놓으면 그것이 CCM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듣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성경암마랑 만들어놓은 MR을 틀어놓으면. 더욱더 모르죠..그냥 경음악으로만 생각합니다... 08.06.16 15:10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뉴에이지 음악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표시하지 않으면 그곡을 어떠한 의도로 작곡하고 음반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고.. 휩쓸릴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뉴에이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더욱더 스스로 분별하며 세상과 구분되어 살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08.06.16 15:10

[수정 삭제](#)

[🌸 너나잘하세요---](#)

오~그런 의미가...—o—!! 몰랐는데..전 클래식을 좀 좋아하거든요..맘이 편안해서 가끔들어요..글구나..저두 뉴에이지같은 비슷한 음악들을 좋아하긴 하는데..왠지 몇번 듣다 질려서 안듣는편이거든요..그래서..가끔가타 씨씨엠 찬양을 피아노로 치면서 기분을 달래기도 하는데요...요즘은..뭘하든..절망인듯..주님 도와주소서.. 08.06.19 15:16

[답글 삭제](#)

[🌸 유영--](#)

아...주여...용서해주시옵소서..이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08.07.10 22:33

[답글 삭제](#)

[🌸 비둘기처럼](#)

감사합니다 그냥 mr 들으려 했으나 주께서 읽게 하시네요 맞아요 사탄이란 놈은 교묘하고 지능적이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 살금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별할수있게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로와 닛사~ 08.07.14 14:13

[답글 삭제](#)

[🌸 하늘 향기](#)

예전에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는 책을 읽고 경악한적이 있었습니다. 서태지씨의 어느 노래는 릴죽음기로 거꾸로 들으면 "피가 모자라"로 들린다고 했었죠.저도 물론 들었어요.서태지씨는 분명 영적세계와 관계가 있는듯 보여집니다.사탄송배 락그룹의 음반중에는 중간 중간

사람귀에는 안들리는 속도로 "사탄을 숭배하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는군요. 그 책이 아마 80대 초~중반에 나온거 같은데 그때 뉴에지 음악이 세간에 막 흘러들어올때였죠. 이제 뉴에지음악은 대중화 되었고 ccm에도 엄청나게 침범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찬양을 골고루 들어보면 그 나라의 영적실체를 대충 읽을수 있는것 같습니다. 08.07.28 15:05

[답글 삭제](#)

[하늘 향기](#)

ccm초창기엔 가사내용이 사명에 대한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영을 일으키는 강력한 찬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점점 듣기 편한 곡으로 유행이 바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것입니다. 강력하지 않고 즐기는 쪽으로 가다보니 예배찬양곡 고르는것도 참 어려운 실정이 되버린것 같습니다. ccm유행이 있어서 지난찬양이지만 정말 은혜스러운것도 참 많은데 그런것들이 점점 불려지지 않고 신세대에 맞는 곡들만 불려지는것은 어쩔수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점점 영성이 떨어져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석같은 곡들을 아주 어쩌다 발견하면 참 ...이런 현실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08.07.28 15:11

[답글 삭제](#)

[하늘 향기](#)

정말 한국교회 교회음악인들을 위해 기도해야할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듯 보여집니다. 같은찬양도 우리의 선교활동으로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나라의 언어로 불려진것이 훨씬 은혜스러운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찬양은 즐기는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 대상이 있는 기도인데 그 의미가 점점 사라져 가는것 같아서 못내 아쉽습니다. 08.07.28 15:17

[답글 삭제](#)

[passion=n=love](#)

소향씨가 최근에 뉴에지곡을 가사만 찬양으로 입혀 부르고 있더군요~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최근 CCM love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던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08.09.10 23:47

[답글 삭제](#)

[성경이아빠](#)

최근에 확인해 보니.. 시크릿가든 "Secret Garden" 의 곡인 "You Rasie Me Up" 이란 곡을 소향씨가 원곡대로 부른경우도 있고, 혹은 "날 세우시네" 라는 곡으로 바뀌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08.11.05 11:22

[수정 삭제](#)

[성경이아빠](#)

예전에는.. 뉴에지 음악을 주의하고 조심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크리스찬음악 내부까지 이미 잠식 되어가고 있음을 볼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군요. 08.11.05 11:29

[수정 삭제](#)

[성경이아빠](#)

특히나 컨티넨탈싱어즈 같은경우 크리스찬음악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기에.. 좋은 의도대로 뉴에지 음악을 도입하여 찬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래의 원곡을 듣거나 원곡대로 부르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서.. 08.11.05 17:37

[수정 삭제](#)

[성경이아빠](#)

원곡의 작곡자인 Secret Garden 의 음악을 아무런 분별없이 접하고 뉴에지 음악이 마치 CCM인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뉴에지 음악에 점점 빠져들어갈 많은 사람들을 바라 볼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8.11.05 17:39

[수정 삭제](#)

[성경이아빠](#)

최근 Secret Garden의 경우 한국인만을 위한 The Ultimate Secret Garden 이란 앨범을 2008년 6월에 발매하였고... 그 앨범에 6번 곡

에 Your Raise Me Up 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08.11.05 17:42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너무나 가슴아프고 통탄할 일은.. 이 곡이 일부 CCM 가수/그룹에 의해 불려졌기 때문에 아무런 분별없이 뉴에이지 음악이 크리스찬 속으로 아무 거부감 없이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 일이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파하실 일입니까.. 08.11.05 17:44

[수정 삭제](#)

🌸 [하비아](#)

충격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저희 교회카페로 담아갑니다. 새로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8.09.25 15:40

[답글 삭제](#)

🌸 [뉴아담](#)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음악에도 사탄의 음모가 있을줄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악이 사용되어지도록 노력해야 겠고, 찬양으로 세상음악을 이겨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8.10.20 22:56

[답글 삭제](#)

🌸 [김용복](#)

공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늘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줘요. 08.11.04 13:11

[답글 삭제](#)

🌸 [몽골전사](#)

와우 와우~~ 뭐 전 음악을 파고들 능력은 없지만.. 귀동냥이라도 하고 갑니다. 이 분야도 더 연구하고 널리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08.11.17 17:12

[답글 삭제](#)

🌸 [오래전부터](#)

Your Raise Me Up ... 저는 그것도모르고 사탄세력에 빠졌었네요..너무 듣기좋고 소향님이 계신 포스의 팬이다보니 그 외의 곡들도 자주 접했었는데... ... 소림이 돌네요 앞으로는 정말 찬양만들어야겠어요.. 08.11.23 23:08

[답글 삭제](#)

🌸 [꿈자](#)

아~~~ 저도 얼마 전에야 You raise me up의 원곡이 Secret Garden인걸 알았답니다. 많이 좋아했고 교회에서 헌금송으로 특송도 하고 요새도 종종 흥얼거리던 노래인데,,, 예전 중고등부시절에 음악분야의 사탄주의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하지만, 솔직히 잘 구분이 안가서 이렇게 멋모르고 듣게 되고 흥얼거리게 되네요--;;; 08.11.24 14:37

[답글 삭제](#)

🌸 [NewCreation](#)

you raise me up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뉴에이지"라는 장르는 어떻게 구분하는거죠? 말 그대로 야니나 캐논변주곡같이 가사가 없는 음악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음악은 어떨까요? 캐논변주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붙여서 불러도 그게 뉴에이지인가요? 개인적인 견해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걸 인식하고 부른다면 그건 찬양입니

다. 저도 한때 락이나 힙합등의 장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러나 모든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락으로 찬양을 하든 힙합으로 찬양을 하든 중요한건 찬양이니깐요 08.11.26 22:50

[답글 삭제](#)

 [NewCreation](#)

물론 교묘하게 숨겨진 의미의 가사는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게 찬양이란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찬양은 모든 장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뉴에이지나 기타 사탄송배음악등을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건 맞지만 단지 음악적인 장르가 뉴에이지(솔직히 뭐가 뉴에이지인지는 저도 잘모르겠지만;;;;)이건 락이건 발라드건 힙합이건 댄스건 다 상관없이 찬양하는데 쓰이면 좋다는거죠 참고로 you raise me up에서 you가 누구냐에 따라 찬양이 되고 사탄송배음악이 되는거겠조 즉 중요한건 "음악 자체"보다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08.11.26 22:50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저도 찬양에 있어서 특별히 장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You raise me up 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뉴에이지 곡으로 벌써 나온 지가 매우 오래된 곡입니다... 이미 뉴에이지 곡임을 인지하면서도 도입했다고 하는것에 있어서 그저 좋은게 좋다(그냥 찬양하는거니깐 찬양이다) 라는 부분은 이미 세상과 타협해 버린 그런 한국의 CCM이 되버린 것이죠.. 언제부터인지.. 인기와 상업성에 치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아이돌 그룹처럼 특정 CCM가수의 팬클럽이 생기고.. 과연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일까요?? 08.11.27 00:08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You raise me up 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지 아직 와 닿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군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You raise me up 을 쳐보십시오..Secret Garden 이 검색될 겁니다. (왜냐면 원곡을 만든 그룹이기에) 그렇다면.. You raise me up을 찬양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분별력 없는 크리스찬들은 뉴에이지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전혀 알지도 못한채로...Secret Garden의 곡들을 여과없이 듣게 될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구요...(참고로 Secret Garden은 자신들이 뉴에이지임을 들고 나온 그룹입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작곡자가 뉴에이지 사상도 모르고 그랬을까요?) 08.11.27 00:19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즉 CCM으로 불리워 지는동안.. Secret Garden으니 올해 6월달에 "The ultimate Secret Garden" 이라는 앨범을 출시했고.. 이는 한국향으로 한국에서만 발매되는 앨범이며... 그 앨범의 여섯번째 곡에 "You Raise me up " 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고 무서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독 한국에서는 이 뉴에이지곡을 CCM으로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이건 힐송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탄의 전략은 대 성공이라고 보여지네요...이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국내 유명한 CCM가수가 영어 원곡으로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이 곡에 원곡을 들어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면 결국 Secret Garden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08.11.27 00:10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뉴에이지라는 장르를 구분해 놓지 않은 상태거나, 뉴에이지그룹이 만든 곡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뉴에이지곡이며 그 Secret Garden의 대부분의 곡들이 듣는이로 하여금 슬픔과 애절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곡들이 대부분인 앨범을 듣고 염세에 빠질 수 있게 되는 위험에 완전히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절대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미 모르고 간과하고 계셨다면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윗 글과 같이 생각하신다니 정말로 저는 두렵고 떨리네요... 08.11.27 00:15

[수정 삭제](#)

 [소영](#)

You Raise me up을 CCM으로 분류해놓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에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다. 울 나라쪽이 아니니.. 알아보기도 힘드네요. 정확한 분류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Pop이 대세예요~ 원곡자가 어떤 마음으로 Secret Garden쪽에 이 곡을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원래 곡의 의도를 아는것이 지금으로써는 제일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우리 카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게 참 기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하나 찾아서 바른것을 알리는것도 카페가 할 일 이겠죠~ ^^* 성경이아빠님의 도움이 참으로 큼니다~ 08.11.27 16:34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위키텍스에 올라와있는 내용을 발췌해 드립니다..(http://en.wikipedia.org/wiki/You_Raise_Me_Up) "You Raise Me Up" is a popular song in the inspirational mould. The music was written by Secret Garden's Rolf Løvland; the lyrics by Brendan Graham. 08.11.27 17:59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원곡의 저자는 Secret Garden의 롤프러브랜드이고.. 가사를 브렌든 그래함이 썼습니다.. 소영님께서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시크릿 가든의 데뷔 10주년 내한 공연전 인터뷰에서의 롤프 러블랜드의 말을 인용하면 '처음에 이곡을 만들때 포기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 멜로디를 잊을수 없어서 작곡을 했다고 말했고 처음엔 연주곡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보컬곡이 더 좋을것 같아서 Brendan Graham에게 작사를 부탁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08.11.27 18:07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아울러 Rolf Lovland는 작곡 전공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박사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딴 사람에게 곡을 받았을까요?? 물론 곡은 아이리쉬 민요풍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만 민요를 그대로 쓴것은 아닙니다. 민요풍에 근본을 둔다는 것을 잘못전달해서 민요가 원곡이 되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곡이 한국에서는 대놓고 CCM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뉴에이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 아니냐?? 라고 역으로 이야기하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고 있구요 08.11.27 18:32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한데요... 천주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공생하며 협력하자~~ 이것 참 좋아 보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사상)과 별다르게 없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다 좋은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타협하지 말아야 할것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절대로... 08.11.27 18:14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찬양과 음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뉴에이지 곡이 좋으니.. 도입해서 서로 좋은 음악으로 CCM도 좋은 음악으로 만들자라는것은 좋은 취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구분해서 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넘지 않아야 하는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의 우상들을 받아들여..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의 CCM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08.11.27 19:18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결국 인간의 욕심과 타락, 교만, 우상숭배 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교만함에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지금의 한국의 CCM계는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진노 바로 앞의 역사에 서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저는 더 떨립니다... 08.11.27 18:40

[수정 삭제](#)

[NewCreation](#)

제가 한 이야기와는 약간 다른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더 글을 남깁니다. you raise me up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단, 음악에 관심

이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인터넷등 검색을 해보고 원곡을 듣고 결국 원곡을 부른 사람의 다른 곡을 듣게될 것이다라는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제가 한 이야기는 종교다원주의, 좋은게 좋은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의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밀쳐내는건 너무나도 베타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한국 기독교는 매우 짝 막인 집단이란 의식도 생겨나고 있구요. 08.11.27 23:22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그러한 상황이 가정인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교회내에 이런일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특히나 저희 성가대가 큰 문제가 될 뻔 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NewCreation 님 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학생과 지인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세상에 빠져 버리는 부분을 바라보실때 똑같은 상황이 생길때에도 같은 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은.. 오직!!!! 우리주 예수님 외에는 용납할 수 없는 당연히 (베타)가 아닌 배타(排他)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08.12.02 08:48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또 다른말 하신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NewCreation 님께서는 NewAge 의 대변자 처럼 보이고 CCM에 NewAge가 유입되어 불리어 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변론하는 것 처럼 혹은.. 한국의 CCM에 NewAge 를 들여온 것에 대한 자기 변명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걸까요?? 08.12.02 08:49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소향과, 컨티넨탈싱어즈 가 불렀을 뿐만아니라 연일 기독교방송에서도 흘러나오고 여기저기 큰 교회에서조차도 여과없이 성가대에서 사용하니까... 저희 성가대에서도 "날세우시네" 이 곡을 원곡을 찾아서 그걸 부르자 해서 찾아들어가다 보니 (저도 이때가지만 하더라도 이곡이 Secret Garden의 Rolf Lovland가 만든 곡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Secret Garden 은 워낙에 유명한 뉴에이지그룹이라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검색해보니 Secret Garden이 딱 나오더군요 멜로디를 들어보면 딴 찬양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고 이곡만 머리속에서 맴돌더군요,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알리고자 한것입니다. 08.11.28 20:23

[수정 삭제](#)

🌸 [NewCreation](#)

중요한건 그 노래를 접하는 사람의 의식이란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시크릿가든이 그 노래를 불렀고 시크릿가든은 뉴에이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가든이라는 팀의 이름만 알지 그들의 노래를 듣지는 않았어요. 저도 원곡이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제가 듣거나 부르는 시크릿가든의 곡은 you raise me up 뿐이란 말이죠. 물론 대중 즉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이아빠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순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건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하는거죠. 그 노래를 부른 시크릿가든은 뉴에이지고 뉴에이지는 이리이러해서 위험하고 주의해야한다... 08.11.27 23:25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저는 80년도부터 Rock, Metal, Pop, Jazz, 등 안접해 본 부분이 없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많이 좋아했고.. 지금도 Rock, Metal 곡도 외우고 있는곡이 40곡은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당시에도 크리스찬으로써 선을 그었던 부분은 오지오스본과 같은 사탄숭배하는 그룹이나 뉴에이지(U2 등이 있었죠) U2가 CCM 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로 엉뚱한 이야기도 있는데.. 1980년대말.. 제가 한참 세상음악을 좋아할때에.. NewAge로 장르의 대표주자가 바로 U2였습니다. 나중에는 Rock, POP으로도 분류가 되고 심지어 CCM이라고 까지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08.11.28 20:29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앞에도 강조했듯..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New Age의 경우는 가사에서도 혹은 노래 제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뉴에이지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CCM으로 착각하고 앨범을 사서 모으고 소장하고 합니다.. ..1987년도 부터 LP판

을 모으기 시작했던 저는 New Age라는 것을 모를때에.. 조지윈스턴의 레코드(LP판)을 사서 모은적도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조지윈스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찬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에이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경악하게 되었구요.. 심지어 교회반주자들 뿐만 아니라 클래식 피아노 전공자들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곡이 바로. 08.11.28 08:56

[수정 삭제](#)

↳ 성경이야빠

조지윈스턴의 각종 피아노 곡들이구요... .. 사실 제 아내도 교회반주를 21년째 하고 있고 클래식 피아노전공을 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이야기하기전까지도 조지윈스턴이 뉴에이지 음악을 하는 사람인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서운거구요...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회계하고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것입니다. 08.11.28 08:51

[수정 삭제](#)

↳ 성경이야빠

뉴에이지곡들을 잘 보면 대부분의 곡들이 사람의 감수성을 지나칠정도로 잘 자극할 정도로 잘만들어진 곡들이고 또한 베스트셀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곡의 제목 혹은 모호한 가사의 내용도 흡사 CCM인 것인것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서 교회내의 찬양까지 침투하여 점점 거룩함을 잃어가게 할 뿐만아니라 점점 더 교묘하게 달콤하게 접근해서 세상에 가까워지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것은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려야 할것 입니다. 08.11.28 20:34

[수정 삭제](#)

NewCreation

요즘의 사람들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선동한다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역에서 예수천국불신지옥을 외친다고해서 몇명이나 회심하고 돌아올까요? 옛날하고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졌단 뜻이죠. "무조건" 막는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의미를 알려주고 설득해야죠.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전도집회때 서태지와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덕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죠. 그들의 문화에 조금은 더 가깝게 접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제가 아는 형님은 지하철에서 you raise me up이 나오길래 따라서 흥얼거렸는데 08.11.27 23:28

[답글 삭제](#)

↳ 성경이야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과 분명 다르지만..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은 one Way JESUS !! 입니다.. 그 진리가 변하지는 않죠.. 방식의 차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즉 찌빵에서 앙꼬만 빼버린 그런 목적과 본질이 변질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도의 목적이 예수님을 알지못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NewCreation님께서 말씀하신 "다니는 교회"--> 이것은 예배당 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만 많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전도의 목적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08.11.28 12:15

[수정 삭제](#)

↳ 성경이야빠

서태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거 92년도 군대 입대해서 6월경 군대 연병장에서는 점심시간때 "난 알아요"가 흘러 나왔었고.. 당시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시된 교실이데아 라는 곡은 Reverse Play를 해서 들어보면 분명히 "피가 모자라 배고파" 이런말이 들립니다... 전 그당시에도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서태지의 8집 "모마이" 라는 앨범을 보고 자켓을 본 순간... 그동안 서태지가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가려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NEW** 08:50

[수정 삭제](#)

↳ 성경이야빠

자켓의 표지는 마치 사탄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엄마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의 뮤직비디오에는 UFO의 모습을 잠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회와신앙 및 국제중요문제연구소 에서도 서태지는 마릴린맨슨과 함께 사탄주의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릴린맨슨의 그 이름의 의미는 성과 살인을 상징하는 마릴린 먼로와 미국 희대의 살인마 찰스 맨슨을

합성한 것 그리고 1994년 마릴린맨슨은 사탄교 성직자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릴린맨슨과 함께 문화대통령 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천진난만한 모습처럼 보이는 서태지의 배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구요. [NEW 09:09](#)

[수정 삭제](#)

[↳ 성경이야빠](#)

출처 : 국제종교문제연구소 <http://www.hdjongkyo.co.kr/> [NEW 09:02](#)

[수정 삭제](#)

[↳ 성경이야빠](#)

출처 : 교회와신앙 <http://www.amennews.com/> [NEW 09:02](#)

[수정 삭제](#)

[↳ 성경이야빠](#)

참고로 <대중음악 불륜을 낮춰라>를 집필한 컬럼니스트인 강인중 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맨슨이 심취한 사탄이즘의 본질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오각형별이나 거꾸로 된 십자가와 같은 상징물, 혹은 맨슨의 소름끼치는 퍼포먼스가 아니다” 라고 밝히며 “사탄이즘의 본질 곧 악마주의의 실체는 맨슨의 모든 노래와 언행 뒤에 숨쉬고 있는 악마주의의 대강령 즉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세계관, ‘하나님 없는 인생철학’ ”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인중씨는 오랜기간 팝컬럼니스트로 활동했고 '워너 뮤직 코리아'대표도 역임한 전문 문화사역자 입니다] [NEW 09:24](#)

[수정 삭제](#)

[NewCreation](#)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그 노래를 아냐면서 말을 걸었다더군요 그래서 우리교회에서 자주 부른다(저희 교회에서는 그 노래를 영어로도 부릅니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 교회에 가고싶다고 해서 전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얼마든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세상의 문화를 주의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사용자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you raise me up이 잘못된게 아니라 시크릿가든이 잘못되었던 말이죠. 08.11.27 23:34

[답글 삭제](#)

[NewCreation](#)

개인적으로 이 게시판에 있는 뉴에이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글은 찬성합니다. 이런걸 알려주는데가 많지 않죠. 앞으로도 이런 글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찬양을 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세상에 나쁜건 없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인간이 나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11.27 23:37

[답글 삭제](#)

[↳ 성경이야빠](#)

이렇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하긴 합니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상에 나쁜것 없다" 라고 단정 내리신 부분은 잘못된것 같습니다...설사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의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08.11.28 15:11

[수정 삭제](#)

[↳ 『Never...』](#)

읽다보니까 성경이야빠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그동안 생각해 오던 것들이 있어서 저도 몇 자 적어봅니다. 사탄의 전략은 너무도 교묘해서 정말 깨어있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you raise me up곡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new age곡이라는 얘기 처음들으면서 저이기 놀랐습니다. 사단이 워낙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였기때문에 당연히 음악으로 우리 영혼을 약아가려는 계획은 확실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부르는 새로운 종류의 CCM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생각해 보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나쁘게 없는게 아니라 나쁜 아주 나쁜 08.11.29 08:54

[삭제](#)

↳ 『Never...』

사단이 있기때문에 세상이 나쁜것이고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나쁜것에 물들기때문에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맘속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에 따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고요...물론 교회에서 전도가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사단의 계략속(우리는 전혀 사단의 계략인 줄 모르죠)에서 사람을 전도했다면 그 열매는 무엇이 될까요...? 확실한 예수그리스도의 선하신 계획속에 하는 전도가 진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몇 자 적었는데, 이 모두가 다 서로 선한 마음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08.11.29 08:50

[삭제](#)

🌸 U-GO-Bride

저도 성경이아빠님처럼 같은 생각이예요. 일단 그 가사가 CCM 같은 가사라고 해도 곡 자체의 의도가 뉴에이지이거나 막말로 사탄음악이라면, 그런 음악을 통해서 귀신들이 틈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겉을 치장해도 원곡의 의도가 뉴에이지같은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뉴에이지로부터 온, 'C C M 같은'곡들을 부르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8.11.29 18:04

[답글 삭제](#)

🌸 U-GO-Bride

NewCreation님께는 죄송하지만... 남은 지금 영적인 부분들을 간과하고 계신것 같아요. 사탄은 보는것, 듣는것, 느끼는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틈탑니다. 예를들어, 사람이 깜짝 놀랄때 사탄이 틈탑니다. 그리고 보아서 좋을것 없는것들을 통해서(예를들어 야동같은것)도 틈탑니다. 그리고 듣는것의 예로는 뉴에이지가 있겠네요. 다 사람이 어떤것을 만들때는 그 사람이 제작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용한 그 어떤것도 다 원래 바탕의 의도로 모이죠. 뉴에이지가 원곡인 CCM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뉴에이지 사상으로 수렴합니다. 즉, 그런곡을 통해서 (위해서도 말했듯이)사탄이 틈탄다는 것이죠. 성경이아빠님께서 글 쓴 의도도 08.11.29 18:43

[답글 삭제](#)

↳ U-GO-Bride

이런 의도일 것입니다. (그렇죠?) 08.11.29 18:44

[삭제](#)

↳ 성경이아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겠습니까.. 08.11.29 22:22

[수정 삭제](#)

↳ NewCreation

뉴에이지가 원곡인 ccm들도 결국 뉴에이지 사상으로 수렴한다는 말은 솔직히 공감가지않네요.. 뉴에이지가 원곡인 ccm은 you raise me up 밖에 잘 몰라서 그 이야기밖에 못드리지만,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 느끼거든요. 뉴에이지의 정신이 기독교와 반대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우리가 부르는 곡의 장르를 보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또 특정 음악 장르가 "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08.11.30 18:27

[삭제](#)

↳ 성경이아빠

NewCreation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 하시지 못하신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슈화 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였다고 위에서 벌써 몇번째 말씀드렸습니다.. NewCreation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을 좀더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08.12.01 08:47

[수정 삭제](#)

🌸 NewCreation

제가 말한 "세상에 나쁜 것은 없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인간외에 "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악한거죠. 모든것은 도구라 생각합니다. 칼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듯이 음악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저는 "뉴에이지음악이 악하다" 이 이야기보다 뉴에이지로 분류된 장르의 음악조차도 그 음악을 하는 사람에 따라 그것이 찬양이 되고 오히려 사탄을 숭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ccm의 뜻 아시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즉 현대기독교인들의 음악은 다 ccm입니다. 그리고 뉴에이지음악은 하나의 흐름일 뿐이구요 08.11.30 18:37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말씀하신 내용에 "세상에 나쁜 것은 없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전형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Japanimation)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이군요... 저도 한때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만... 어느순간 재미를 넘어서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있는 각종 사탄의 내용들이 경악할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패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건담시리즈 부터 시작해서 은하영웅전설(원작 소설), 그리고 대표적인 미야자끼하야오 그외 거의 대다수의 저패니메이션들은 첫번째로 그 내용에서 결론에 가까워 질 수록 권선징악 이 아닌..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져 어느순간 악을 옹호하는 입장에 도달하는 NEW 08.12.03 08:01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러한 결론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 수많은 저패니메이션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법, 정령, 외계인, 악귀소환, 혹은 왜곡된 기독교사상, 비밀비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속에 내재되어 표현하는 사탄의 표식 및 사탄옹호사상 등을 잠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은.. 대중문화 매체를 통해서 인간을 쇠뇌 시키듯 점점 사탄의 사상에 물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NewCreation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 어쩔 그렇게도 Japanimation에서 보여주는 사상과 비슷한지 그저 놀랄뿐입니다. NEW 08.12.03 19:50

[수정 삭제](#)

[NewCreation](#)

참고로 칼럼하나 링크 걸어둡니다 http://holymusic.org/v1/?document_srl=156 이 링크의 설명처럼 you raise me up이 뉴에이지풍이 아니 뉴에이지음악이라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하지만, 적어도 그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8.11.30 18:40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링크를 읽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칼럼은 칼럼일뿐.. 기독교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처음 MR나눔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크리스찬 신문사인 찬양신문사의 어떤 기자의 글을 읽고 크리스찬음악이 찬양이 목적이 아닌 돈벌이가 목적인 듯한 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강한 충격을 받았고 과연 크리스찬음악이 이래야 하는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복음성가 경연대상제에 한 학생을 출전시키면서 예선이 열린 연세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전 목사님께서 "영성있는 찬양"을 하라고 그자리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08.12.01 10:39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불과 1분도 안되서.. 윤석전 목사님 말씀이 무색하게 심사위원석에 앉아계시던 심사위원을 하시는 분 중 한분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심사의 기준은 첫번째로 기교라고 하시고 이게 심사의 90%를 좌우하겠다고 하시더군요...그리고 기타 영성, 외모, 자세 등등이 나머지구요.. 그때 저는 그곳에서 머리에 해머를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곡과 은혜와 영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찬양이... 최우선이 기교라니...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아마 그분은 모 대학교 CCM관련 교수라고 스스로 소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12.01 11:33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또 4년전 착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던 저희 교회 학생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다고..모 대학교 CCM 학과 진학을 결심하고

CCM 음악 보컬선생님으로 부터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나 그애의 삶의 생활과 태도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애는 결국 CCM의 기교와 사람의 외형만을 바라보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CCM가수가 되어 소위 말하는 CCM 스타가 되고자 하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고..삶의 목적이 바로 CCM 가수로서 어느순간에는 하나님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08.12.01 10:06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지금은 그 학생을 두어달에 한번 정도 얼굴을 볼까 말까 하다가.. 몇달 전부터는 얼굴을 본적이 없습니다..... 학생때 그렇게 열심히었던 학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다고 CCM과에 들어가서 졸업한 이후에... 평범한 다른 학생들 보다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지 않는 모습을 볼때... 물론 극히 일부 학생들일 수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이를 거울처럼 비추어 유추해 볼때에... 그렇게 밖에 생각 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08.12.01 09:28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곳에는 계셔야 할 우리주님은 안계시고.. 노래하는 사람만 있구나... 라는 생각이요.... 또 얼마전에 어떤 학생이 CCM 학과 지원을 하는데 사용할 MR제작을 부탁을 해서.. 애엄마가 힘든 상황에서도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시험을 잘 치루어 합격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꼭 이말을 강조했었습니다.. 실기 시험을 위한 목적이 아닌 원래 찬양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며 오직 주님께 찬양과 영광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어요 08.12.01 09:21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사탄은 교묘하여.. 찬양사역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과거 80년 후반에 굉장히 영성있는 찬양이며 또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불리어 지고 있는 곡을 만드신 분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충격을 받을만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어느때 사탄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저역시도 인간인지라 어느 욕심,교만이 생길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만하지 않고 영적분별력을 달라고 기도 합니다... 08.12.01 09:28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어제도 모 신학대학교 콘서바토리 교수님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교회에 찬양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애 엄마가 피아노 및 신디사이저 연주를 하기에 또 저는 그곳에서 음향시스템 모니터링을 해주기위해서 갔었지요... 어제 바로 그곳에서도 교수님 및 계시는 목사님 및 관계자들 앞에서 분명히 그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어질때... 항상 그자리에 교수님께서 있으시면 안되고.. 그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간이 교만해 질때면 그리고 모호하고 애매한 생각으로 혼란에 있을때에.. 사탄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08.12.01 10:53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리고 링크하신 칼럼에서는 NewAge와 과거의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를 비교한것은..비교 자체가 다소 억지 스텝다는 것입니다. 그런 곡들이 만들어진 배경은 NewAge 사상이 만들어진 배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명상을 포인트로 잡고 비교하셨으니 그러한 비교가 바로 억지 스텝다 라는 것입니다. 집고 분명히 하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NewAge 사상은 처음 만들어질때 부터 대놓고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사상"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멀게 하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상이고 모든 우상들을 수용하는 사상으로써 특히 음악 쪽에 가장 크게 대중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08.12.01 11:10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임을 이미 알려주고 또한 그러한 NewAge Musician 은 자신도 동일한 이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장르로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교만한 인간이 있고 그 위에 사탄이 군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된 NewAge 음악을.. 어떻게 감히 교향곡,협주곡,소나타 등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의 대부분 유명한 교향곡, 협주곡 등의 기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곡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곡도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곡자에 따라 틀린 그런 음악들을 어떻게 NewAge와 동급으로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08.12.02 08:43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근본이 사탄의 사상으로 출발한 NewAge를 이렇게 옹호하고 오히려 반론하고 있는 듯한 글을 볼때.. 더 큰충격이 아닐 수가 없군요. 과거와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칼럼에서 나타나는 글과 내용을 볼때에 달라진 ??? 혹은 변화된 사상??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ewCreation 님께서는 NewAge에 관해 다시금 영적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주님앞에 모든것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08.12.02 08:44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창세기3장4~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NewAge 의 사상은 바로 이것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명상을 통해 신과 같이 된 다 라는것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에게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빌미를 줄만한 여지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NewAge에 대해서는.. 더이상 분석하고 연구하지 마시고 칼로 무우 자르듯 잘라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08.12.02 08:46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애초에 크리스찬음악에 NewAge의 곡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제기될 문제도 아니었을 사항입니다. 이제라도 한국의 CCM계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하여 찬양과 음악을 도입하고, 만들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08.12.01 11:22

[수정 삭제](#)

데살로니가전서 5:16~23 [16항상 기뻐하라 17쉬지 말고 기도하라 18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예언을 멸시치 말고 21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08.12.02 08:39

[수정 삭제](#)

🌿 [kwoonami](#)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교만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내쫓아 된 그 이름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천사의 3분의1)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가장 중요한 찬양 즉 노래 음악을 사단이 잡고 있기때문에 정말 하나님바라보는 음악 그 흑암 혼돈 공허속에 존재하는(창1:2) 그 사단문화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복음문화로 바뀌는 영적군사들이 되어 할거 같아요.. 08.12.01 09:43

[답글 삭제](#)

🌸 [NewCreation](#)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영성있는 찬양... 그럼 그 영성은 뭐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찬양대회자체에서는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부터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그건 좋은사람, 나쁜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찬양하는거 한번 보고 영성을 판단하다뇨... 그 사람의 평생을 함께 해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또 판단해서도 안되는게 영성인데요...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성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중에 실망을 했죠) 08.12.02 15:56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영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것은.. 우리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만약 심사하시는 분들속에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참가하신 분들의 영성을 이미 느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대회에.. 심사위원석에 조용기목사님, 윤석전목사님, 하영조목사님, 옥한음목사님 같은 분들 께서 앉아 계셨다면 말씀하신것 처럼 영성있는 찬양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미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 영성이 부족하기에... 이미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단순히 세상적인 음악의 하나라고 바라봤기에 그런것 아닐까요?? 08.12.02 16:29

[수정 삭제](#)

 [NewCreation](#)

찬양대회는 우열을 가리는거고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기교나 실력등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결국 심사위원이 보는건 기교나 실력이 될테고 그 사실을 모르고 찬양대회에 많은것을 걸었던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게 되겠죠. 어찌보면 너무 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ccm의 상업화... 결국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찬양앨범을 제 돈 내고 사지 않고, 악보를 제 돈 내고 사지 않고... 찬양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먹고살수가 없죠. 조지물러처럼 기도응답으로 위기를 넘기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08.12.02 15:56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그렇게 먹고살수 있는 문제로만 찬양사역을 바라보기에 이렇게까지 온것입니다...(마태복음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08.12.02 16:36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마태복음 6:31~32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08.12.02 16:37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08.12.02 16:38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사역을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함 없이 그저 먹고살 직업으로 생각 했다면 그 사람은 찬양 사역자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업이 "종교가수" 혹은 "CCM 가수" 혹은 "종교음악가" 이렇게 불러야 맞을 것 같습니다... 08.12.02 17:45

[수정 삭제](#)

 [NewCreation](#)

조금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영성은 찬양을 하는 개개인마다의 몫입니다. 타인이 판단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장르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거죠. 애초에 사탄이 만든것? 그 사탄은 누가 만들었으며 사탄이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탄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또 옛날에 히피들이 불렀던 찬양들... 처음에 그 음악들을 누가 찬양으로 인정이나 해줬나요? 다들 불경하다며 배척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영성에 결국 그 찬양들은 널리 퍼지게 되었죠. 만약에 히피들이 "장르"만 자기네식으로 바꿔불렀다면 결국 그 음악들은 기독교음악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08.12.02 15:57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영성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현란한 기교로 CCM을 잘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영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NewCreation 님께서 말씀하신 타인이 판단 할 수 없다 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이세상에 영성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단정 짓는것과 같습니다... [NEW](#) 08.12.03 08:27

[수정 삭제](#)

[NewCreation](#)

하지만 히피들이 불렀던 찬양에는 영성이 들어있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거의 전형적인 형태의 찬양이 되었죠. 만약 인도문화에서 전도를 했을때 그들에게는 어떤 음악으로 찬양을 하라고 해야할까요? 그들이 하는 음악들은 불교에 기반을 둔 음악일텐데....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장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거예요. 08.12.02 15:57

[답글 삭제](#)

[성경이아빠](#)

NewCreation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음악적 장르" 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NewAge"의 경우는 음악적 장르로 바라볼 사항이 아닙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찬양문화에 과거 터부시하던 드럼, 일렉기타등 하드락 수준의 악기까지 도입하여 찬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게 아닌데 자꾸 장르쪽으로만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NewAge"는 장르가 아니고 사탄의 사상입니다....다시한번 강조드리자면 "사탄의 사상" 08.12.02 16:20

[수정 삭제](#)

[NewCreation](#)

예를 들기위해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누군가가 뉴에이지음악으로 하는 찬양을 접하고, 그 노래의 원곡을 찾아가 뉴에이지 사상을 접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뉴에이지음악의 문제라기보단 그의 신앙의 문제고 주변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잘못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 한것은 그 사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말하는 "뉴에이지음악"에 대한 것이었고, 음악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알가알부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거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you raise me up" 곡 자체는 전혀 해가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08.12.02 15:57

[답글 삭제](#)

[성경이아빠](#)

NewCreation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래의 원곡을 찾아가 뉴에이지 사상을 접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뉴에이지음악의 문제라기보단 그의 신앙의 문제고 주변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잘못입니다" 이말이 굉장히 위험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계시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놓구서... 그러다가 NewAge에 빠지면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뇨. 그렇게 해서 뉴에이지에 빠지면 네탓이고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생각과 말씀을 하시는지요?? NEW 08.12.03 10:18

[수정 삭제](#)

[성경이아빠](#)

NewAge 곡을 도입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나 교회의 혼란이 생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빌미를 제공해 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르치치 못한 개개인의 탓으로 돌리다뇨.. 이게 어찌 할 말씀이신가요 08.12.02 16:11

[수정 삭제](#)

[NewCreation](#)

음악은 음악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가사를 찬양으로 부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전에도 적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면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글을 좋아합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죠. 안일한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구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상한 사상을 접하더라도 그것을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믿음... 08.12.02 15:58

[답글 삭제](#)

[성경이아빠](#)

하나님을 찬양하는것은 단순히 가사를 불려 노래부르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예배고 곡조있는 기도입니다..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면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 보여집니다. 08.12.02 16:50

[수정 삭제](#)

 [NewCreation](#)

성경이아빠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로 뉴에이지를 결국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는거니까요. 저는 딱 한가지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약한게 아닙니다. 저 또한 뉴에이지파원 신경도 안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안한다는건 우리에게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말과 같이 들리는건 저 뿐만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음악으로 찬양을 해야하는지를 묻고싶네요.... 대부분의 음악은 사탄으로부터 출발했을텐데말이죠 (사탄이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라죠) **NEW** 08.12.03 09:52

[답글 삭제](#)

↳ [성경이아빠](#)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이미 나와서 세상에서 아주 많이 팔린 음반이자 아주 널리 알려진 곡을 가사만 찬양처럼 입혔다고 해서 또 그것을 유명한 소향이나 컨티넨탈싱어즈가 원어 혹은 "날세우시네" 라는 곡으로 불렀다고 해서 원래 목적으로 의도 되어 작곡되었던 곡의 내용이 바뀐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뉴에이지 작곡자의 의도가 이러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찬양의 리더격인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원작곡자의 의도된 계획에 즉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NEW** 08.12.03 19:46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만약 마를린맨슨의 곡에다가 가사만 찬양으로 입혔다고 해서.. 사탄추종가가 불렀던 곡이 찬양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에이지와 전혀 다르고 크리스찬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 메탈음악이라 찬양 가사를 입혀도 찬양이 안되고,, 뉴에이지곡은 선율이 좋아서 가사를 입히니 찬양이 된다..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의 2가지 모두 절대로 되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에이지의 기존곡에다가 가사를 입혀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NEW** 08.12.03 14:15

[수정 삭제](#)

↳ [성경이아빠](#)

과거 일제시대때 신사를 참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 내부에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며 타협한 목사들과,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지켜 순교하신 분처럼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뉴에이지와 비교하는 부분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신사 참배의 경우 순교가 달린 부분이었고 현재의 뉴에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인정하는 것은 순교와는 거리가 먼 부분이지만... 한국의 크리스찬음악계에서 이렇게 원래의 목적이 사탄의 사상임을 알고 있는 뉴에이지의 곡 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과거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NEW** 08.12.03 14:09

[수정 삭제](#)

 [NewCreation](#)

성경이아빠님과 저와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계속되면 서로 자기 생각만 이야기 하게되고 보기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와 성경이아빠님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게 목적이란걸 저도 잘 아니까요^^ 저도 뉴에이지를 비롯한 세상 음악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NEW** 08.12.03 09:55

[답글 삭제](#)

 [웅기사랑\(영균\)](#)

모든 글들(댓글)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이아빠님 글을 보고 더 많은걸 배울수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이아빠님과 같은 생각이며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별력 없이 음악을 접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두려울때가 많습니다.. 터부시해서 좋은게 좋은거다 라기 보다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음악이나 위에서 언급하신 뉴에이지 음악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인식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통해 알지 못하고 지

냈던 많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NEW 08.12.03 18:14

[답글 삭제](#)

 [웅기사랑\(영균\)](#)

마음 급한 사람들은 어떤 CCM이 뉴에이지 음악이냐고 알고 싶어 하겠네요... ^^;성경이아버님이 계셔서 많은 것을 도움을 주고 받을수 있겠 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것과는 타협할 것이 없다 라는 말도 상당히 인상에 남습니다.. NEW 08.12.03 18:19

[답글 삭제](#)

뉴에이지 음악(New Age Music)

1) 뉴에이지 음악 (New Age Music)

뉴에이지 음악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으로써 예술적 영성 창조, 휴식, 긍정적 사고를 의도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요가, 마사지, 명상,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사용하여, 집이나 주변환경에 평화로운 기운을 만들어 환경보전주의 정신과 더불어 **뉴에이지 영성(New Age Spirituality)과 연관 되도록 만들어진 음악**

I 뉴에이지 음악의 하모니

- n 선법(旋法), 공명 그리고 단조로운 베이스가 포함되어 사용됨

I 뉴에이지 음악의 멜로디

- n **반복적 멜로디를 사용하여 최면 상태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줌**
- n 자연의 소리들을 녹음하여 사용하며 트랙의 인트로(시작)부분 또는 트랙 전체에 사용하기도 함
- n **반복적이고 최면 상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멜로디는 보통 30분 정도까지 사용함**

(이와 같은 특징은 사이버 마약이라 불리는 아이도저와 같이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중독성 음원 음원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음))

I 뉴에이지 음악 형태

- n 전자적 형태: 소리를 길게 유지하는 신디 패드(Synth pads)나 시퀀서를 사용하는 길게 연주되도록 하는 부분에 의존하는 전자 음악적 형태를 띄고 있음
- n 어쿠스틱 형태 : 플룻, 파아노, 어쿠스틱 기타, 비서양적인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들로 연주하는 형태를 띄고 있음
- n 많은 경우에 고음질로 샘플링이 가능한 악기들이 자연의 악기들을 대신 할 수도 있음 (최근에 나오는 신디사이저는 어쿠스틱 악기에 견줄만 한 음들이 만들어 짐 □ 기본적으로 신디사이저에 샘플링된 음색들이 들어있음)
- n (Vocals Arrangement)목소리 배열은 초기에는 매우 드물게 사용하였으나 발전되어 지금은 일반적으로 자리잡게 됨
- n 특별히 목소리 배열 형태의 사용은 미국의 원주민(인디안), 산스크리트인, 영창 하는 티벳인, 또는 신화의 가사들에 기본이 된 켈틱 전설이나 요정의 나라 (판타지) 등에서 주요 특징을 띄고 있음

I 뉴에이지에 음악적 장르로만 속한경우

- n 뉴에이지 음악가들은 뉴에이지 믿음을 품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는 음악가들도 있으며 자신들은 뉴에이지에 속하는 것을 싫어하나 특별히 모호한 분류로 그들이 레코드 (레이블)을 붙이는 경우에 뉴에이지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이 뉴에이지적 사상을 가지지 않더라도 음악적 장르가 특별히 모호한 경우는 음악 판매자들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뉴에이지에 분류 되기도 함

I 뉴에이지에 음악적 스타일

New Age Music	
음악 스타일의 기원	Classical music / Electronic music / Folk music / Ambient music /Musique concrete Progressive rock / Psychedelic rock / Krautrock / Traditional folk music / World music Celtic music / Minimalism / Avant-garde music / Free jazz
Cultural origins	1960년대 후반 - 유럽문화
전형적 악기들	piano, synthesizer, sampler, sequencer, computer, strings, found sounds (often bird song or whale song, waterfalls, etc), folk and ethnic instruments, acoustic guitar, flutes, harp, sitar, tamboura, tabla, organ
주요 인기도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음(뉴에이지 명성과 연관되어짐)
파생 형태	Post-Rock
하위장르	
네오클래식(뉴에이지), 공간음악(Space Music), 서사교향곡(tone poems), 생체음악(biomusic), 안데스 뉴에이지	
퓨전장르	
켈틱퓨전 (Celtic fusion), 포스트락 (Post-Rock)	

2) Definitions of New Age music

n 뉴에이지 음악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광범위한 음악가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음악임

- I 민속 악기 연주 : John Fahey, Leo Kottke,
- I 전자 미니멀리스트 : Steve Reich, Philip Glass,
- I 신디사이저 사용 : Pink Floyd, Brian Eno
- I 인상주의 재즈 연주자 : Keith Jarrett , Pat Metheny.
- I 실험적 연주자 : Kitaro (기타로) (천계, 실크로드, full moon story, 천년여왕 OST 등) 1970년대 실험적인 전자악기와 어쿠스틱을 조합한 스타일이 매우 다른 동양의 뉴에이지 음악가)

n New Age music Definitions

- u 뉴에이지 음악은 영향력이나 느낌에 의해 규정 되어짐

- u 악기 연주는 그 곡의 창조성에 의해 사용되고 사용되는 악기는 전자악기, 어쿠스틱 혹은 둘다 사용함
- u 다양한 클래식 음악의 악기인 피아노, 어쿠스틱기타, 플룻, 하프, 전자악기나 동양적 sitar, tabla, tamboura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솔로나 앙상블 연주를 하는 등의 매우 광범위한 뉴에이지 음악가들이 있음
- u 뉴에이지의 음악적 영역에 중요하게 중첩되는 음악적 장르는 엠비언트(ambient music)음악, 클래식 음악, 재즈, 일렉트로니카, 월드뮤직, 칠아웃(chillout) 스페이스 음악등이 있음

(용어정리)

- I 칠아웃(chillout)음악 :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느린 전자 음악
- I 엠비언트, 일렉트로니카, 칠아웃, 스페이스 장르의 음악들은 뉴에이지 명상 (뉴에이지 수행)을 위한 음악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음

최근에 MR제작 요청을 받고 이 MR을 제작하면서 느낀 많이 느낀 부분으로는 MR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음질의 원곡을 찾아보려 해도 뉴에이지 곡들과 같이 널리 공개되어 인터넷에서 누구든 쉽게 듣고 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말아야 할 크리스찬음악들이 저작권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점점더 제대로 크리스찬음악을 보고 듣기도 힘들어 졌다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뉴에이지의 원곡 을 CCM에서 도입하여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곡에 의해서 오히려 크리스찬음악을 좋아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뉴에이지에 빠져들게 해버리게는 그런 무서운 상황을 볼때에.. 어떻게 말로 해야 할지를 모르는 때가 되버렸습니다.

국내에서 매우 잘 알려진 인기있는 CCM 가수라는것 때문에 또 국내에 영향력을 끼친 찬양단이란 것 때문에 과연 뉴에이지음악을 도입하여 CCM화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상업화 라는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서 점점 뉴에이지음악쪽에 빠져들어갈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뉴에이지의 원곡이 국내 CCM에서 불리워지고 CCM에서 베스트로 올라오는동안 그 뉴에이지 원곡을 만든 장본인은 올해 6월달에 "한국인을 위한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 원곡을 만든 뉴에이지 곡들의 특징은.. 주로 슬픔을 주로 느끼게 만드는 애절한 곡의 뉴에이지로 유명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뉴에이지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염세에 빠지는 일이생길까 행여 원곡을 따라가다가 결국 뉴에이지음악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국내 유명한 찬양사역자들을 통해서 CCM을 통해 오히려 역으로 크리스찬들을 뉴에이지 음악쪽으로 인도하다니 어떻게 한국의 크리스찬 음악이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에이지 원곡에 가사를 바꿔서 찬양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 뉴에이지 곡의 본래 목적이 틀려질까요???

그 뉴에이지의 원곡에서도 지칭하는 대상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대상인 "신"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 라는것이 우리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게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의 본래 사상은 인본주의 이며 세상의 모든 신들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고 또한 모든 신들은 동등하다는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 신들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명상을 통해 해탈의 경지로 올라가며 결국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며 인간은 신처럼 될 뿐만아니라 결국 인간도 신과 동급이 된다는것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의 사상 입니다.

뉴에이지 곡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듣기 좋고, 감미롭고, 애절하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곡들이 대부분이며 또 많은 곡들이 가사가 없고 또한 곡에서 표현하는 내용도 그냥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함정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라 이곡이 찬양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곡의 원작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뉴에이지 본래 사상인 모든 신들중 하나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은 바뀐것이 없으며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그러한 부분으로 미혹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려하던 사항이 한국의 CCM 음악에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걸 보니 어떻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매스미**

디어 및 인터넷이라는 Global Network를 장악해 가는 사탄의 계교 를 볼때에 너무나 무섭고도 떨립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널리 알리고 함께 찬양을 나눠야 할 인터넷의 전도공간이 이렇게 크리스찬 음악들은 꽁꽁 묶이고.. 뉴에이지 곡들은 누구나 쉽게 듣고 보고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크리스찬 음악이 너무나 너무나 상업적으로만 변해가며 크리스찬 음악의 본질인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점점 자취를 감추어가지 않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국내 CCM계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시인하고 각성하여 그동안 상업성 및 인기와 기교에만 치중하여온 CCM 음악 및 사역자들이 다시금 진정한 영성으로 회복하고 진정한 찬양사역의 본질이 어떤것인지를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Again 1907년 운동과 같이.. 크리스찬 음악계 에서도 다시금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CCM 이 되도록 회복운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MR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께서는 찬양 및 찬양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겨 보며 오직!!! 주님께 크신 영광을 위한 찬양으로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CM으로 둔갑한 뉴에이지음악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교묘한 사탄의 전략)

한국의 CCM 문화적 특징

세상적인 문화에 있어서는 한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의 찬양 및 영성에 있어서도 점점 한류화? 시켜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CCM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부분과 같이 열악한 일반 상업적인 대중음악 시장에서의 흥행에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름대로 상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진정한 찬양 혹은 CCM의 본질은 뒤로 하고 흥행을 염두하고 음반제작으로 접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보니 세상적인 젊은이들을 문화적인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보다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좋은 의도(?)로 포장하여 JESUS MUSIC 으로 출발한 미국의 CCM계에서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는 힙합(랩) 스타일의 음악조차 아무런 검증이나 조치가 없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 행사나 예배 준비찬양 등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CM(JESUS Music 혹은 JESUS Rock)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사나 내용 혹은 기독교적 테마가 있는 곡이라 하더라도 펑크(Punk Rock), 힙합(특히 Holy Hip-Hop : 기독교적 테마로 하는 힙합), 하드코어(Hardcore Rock) 등과 같은 장르의 음악은 CCM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음악 장르에만 포함시키고 있음)

(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Contemporary_Christian_music)

그러나 한국의 CCM계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CCM 장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가사만 기독교적인 테마로 써 넣으면 그게 어떠한 장르건간에 상관없이 그냥 CCM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소 외국(미국, 호주등)에서 불리어 지는 검증된 CCM이 들어와서 국내에 번역되어 불려지는 CCM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CCM은 이러한 분류나 기준이 없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개탄할 노릇이지만 더욱 놀라 자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한국 CCM에서 뉴에이지곡까지 도입하여 원곡에서 가사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은혜라는 교묘한 사탄의 달콤한 말로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교회에서 예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가대에서조차 이 곡을 분별하여 걸러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사용하여 영광스럽고 거룩해야 할 예배에서 성가대곡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이 얼마나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뉴에이지곡이 한국 CCM에서 사용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곡은 바로 You Raise Me Up 이란 곡 입니다.

You Raise Me Up 뉴에이지 곡의 탄생 배경

작곡가이며 피아노연주가인 롤프뢰블란 [Rolf Løvland]과 바이올리니스트 피오눌라 쉐리[Fionnuala Sherry] 두 사람으로 구성된 Secret Garden 이라는 뉴에이지 듀오에 의해 만들어진 곡이며 이 곡의 작사자는 브랜던 그래험(Brandon Graham) 입니다.

이 곡은 1998년도에 브랜던 그래험이 쓴 베스트셀러 소설인 The Whitest Flower 를 읽고 롤프 뢰블란이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써 이후에 The Whitest Flow의 작가이자 작사가인 브랜든 그래험에게 롤프 뢰블란이 작사를 의뢰하여 만들어진 곡이 바로 You Raise Me Up 입니다.

(참조1 : http://www.peermusic.com/peermusic/index.cfm/artist-writer/artist-details/?artist_id=351)

(참조2 : http://www.secretgarden.no/lowband/sight_sound/music_redmoon_linernotes_youraisemeup.html)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유언비어로 잘못 알려진 것은 위의 소설가 브랜던 그래험이 CCM 작곡자 라는 미혹된 내용으로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어떤 사람은 Secret Garden(Duo) 공식홈페이지의 내용에 있는 근거 내용을 제시해 주어도 믿지 않고 유언비어가 진리인것 잘못된 것을 맹신하고 있었고 유언비어의 내용을 토대로 You Raise Me Up이 본래 CCM 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브랜던 그래험의 베스트셀러인 “The Whitest Flower” 소설의 줄거리는 19세기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배경으로 역경과 부조리에 대항하여 싸우는 여인의 삶을 그린 소설이며 이 소설에서의 강조하는 주된 내용은 인간의 사랑과 이성만으로도 인생의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You Raise Me Up 의 가사 내용을 살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산 에 설수 있고)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나를 세워, 폭풍우 치는 바다를 향해 걸을 수 있고)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There is no life - no life without its hunger (배고픔 없는 인생은 없으며)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정처없이 떠도는 마음은 불완전하게 뛰고 있지만)

But when you come and I am filled with wonder (당신이 내게로 오면 나는 경이로움으로 찹니다)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가끔, 내 생각으로 영원을 살짝 맛보는 듯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위의 가사에서 You를 God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가사를 쓴 브랜드그래험은 소설가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또 원작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 여인의 사랑과 이성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소설에 영감을 받아 롤프뢰블란이 작사를 부탁하였을 때 브랜드그래험은 과연 어떠한 의도로써 저 가사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객관적이며 냉정하게 판단컨데 You 라는 대상은 크리스찬들이이야기 하는 신(God)이 아닌 인간의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당신(You)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Secret Garden(duo)는 자신의 “Secret Garden” 을 뭐라 설명하는가

뉴에이지 듀오인 Secret Garden(Duo)는 음악으로써 유럽과 한국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인 “Secret Garden” 을 어떻게 정의 했느냐 하면 1997년도에 발매된 그들의 앨범 중 “White Stones의 앨범의 소개와 그 앨범에 소개된 “Sanctuary” 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의 어딘가에 비밀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곳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며, 때로는 그 안에 조용히 칩거하며 기쁨과 묵상에 잠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나의 음악들은 이런 나의 비밀의 정원에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Secret Garden(Duo)은 나아가 그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라 말한다.

"성소(聖所)는 명상과 고요한 주시를 위한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그곳은 영적인 내면의 방(spiritual inner room)이며, 우리는 그 곳에서 이성의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

(앨범 ‘White Stones’ 중 ‘Sanctuary성소’ 해설에서)

(이하 원문)

(The White Stones □ Sanctuary)

A sanctuary can be a sacred place for meditation and quiet contemplation.

In this song it relates to the secret garden inside us.

A place to seek refuge – a spiritual inner room

where we can light candles for our own private reasons.

뉴에이지 듀오인 시크릿가든(Secret Garden(Duo))은 자신들이 이러한 뉴에이지 영성을 위한 부분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뉴에이지의 명상과 뉴에이지 영성을 통해 그들의 곡들을 써왔음을 스스로 이야기 하고 있을 정도로 뉴에이지의 영성과 관련된 음악을 만들어 내는 철저하게 뉴에이지 사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CCM및 국내에 영향을 미친 You Raise Me Up

앞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You Raise Me Up 이라는 곡이며 이는 상업적으로도 매우 크게 성공한 음반입니다.

이 뉴에이지곡은 전세계적으로 125번 이상을 앨범에 등재된 곡이며 이 카운터(125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여러 CCM가수 및 그룹에 의해 불려지고 CCM 타이틀로 앨범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이 곡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CCM으로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 곡에 대한 라이센스비용(저작권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처음 이 곡을 CCM에 넣고자 기획했던 프로듀서나 기획자는 이 곡이 뉴에이지곡임을 100% 알고 있었음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에이지곡이 CCM에 아무런 여과와 검증없이 들어와서 유명 CCM가수나 그룹들이 부르고 그들의 앨범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이지만 열악한 한국의 CCM음악계의 현실로 찬양 사역자들의 배고픈 현실이 상업주의와 손잡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뉴에이지가 뭔지도 모르는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역자 및 목회자까지도 이 곡이 뉴에이지 곡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CCM 이라고 하니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사탄의 사상이 포함된 곡을 노래하며 부르게 된 것입니다.

2007년 이후에 You Raise Me Up이란 곡이 뉴에이지 곡임을 알게 된 크리스찬들이 교회안에서 뉴에이지곡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란이 발생되면서 크고 작은 논란 속에 휩싸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이 곡을 성가대곡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일부 교회 내 분열과 갈등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간에 이 You Raise Me Up을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과 갈등 또 찬양단 내에서 사용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한 성도간의 상처와 같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보았을 때 이미 한국 교회는 사탄의 계략에 순순히 넘어가고 있었음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CCM에서 You Raise Me Up이 한참 찬양이라고 부를 때 Secret Garden은 한국인만을 위한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당시 국내 CBS, CTS 등에서도 이 곡을 광고방송에 많이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공중파 방송 광고에서도 이 곡을 실은 광고가 나가면서 또 한번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You Raise Me Up 이란 곡이 갑자기 붐업이 되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곡을 만든 Secret Garden(Duo)은 한국인의 관심도와 폭발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2008년 5월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 판으로 Secret Garden □ The Ultimate Secret Garden 이라는 앨범을 따로 준비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앨범의 6번째 곡에 바로 You Raise Me Up이 있고 7번째 곡: Prayer, 8번째 곡:Hymn To Hope 등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제목만을 보면 마치 기독교적인 특징을 보이는 앨범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Prayer), 희망을 향한 찬송(Hymn To Hope)처럼 마치 기독교적인 색채를 뽐고 미혹적인 형태로 다가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지윈스턴의 December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중에서 추수감사(Thanksgiving), Jesus, Jesus, Rest Your Head 와 같이 마치 기독교적인 색채를 느끼게 하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테마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미혹하는 것 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조지윈스턴 : 1980년도 뉴에이지 전문 음반제작 레이블 “윈드햄 힐(Windham Hill)” 설립자중의 한 명이자 대표적인 뉴에이지 작곡, 연주자)

(참조 http://blog.daum.net/paul_s/8896163)

한국 CCM에서 뉴에이지곡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참 갑론을박 하던 도중 점차 논쟁이 시들해져 가고 한참 기독교계 방송에서조차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던 때에 드러나게 된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파악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You Raise Me Up이 유독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노래이다 보니 뉴에이지 음악가인 원작자 Secret Garden은 한국인만을 위한 앨범을 출시 한 것 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혹 You Raise Me Up이 CCM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중에서 혹 시 Secret Garden(Duo)가 CCM 음악가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앨범을 구매하고 듣게 되고 또 뉴에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CCM=NewAgeMusic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 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불안했던 마음은 2011년초 한 크리스찬과 이야기 하는 도중에 현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You Raise Me Up을 유독 좋아하여 핸드폰 벨소리에 까지 사용하시던 어떤 분 께서는 뉴에이지음악들에 대해서 전혀 거부반응이라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 다양한 종류의 뉴에이지 음반들을 사서 듣기 시작했었다는 것 입니다.

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리만큼 애통한 일입니까 한국의 CCM계에서는 많은 CCM 사역자 들이 You Raise Me Up에서 말하는 You의 의미가 하나님(God)을 의미한다고 멋대로 정의하고 마음대로 교회안에 이런 사탄의 사상인

뉴에이지의 사상이 들어있는 곡을 사용하여 교회음악을 더럽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라는 명목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You Raise Me Up 이라는 곡이 CCM 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스러워 하던 일이 실제로 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국내 CCM 음악계를 선도하는 유명한 찬양 선교단에서는 “날세우시네” 라는 제목으로 이 곡을 불렀으며 또 국내에 이름있고 영향력이 큰 아주 유명한 CCM 가수들도 이 곡의 원곡 그대로 가사 하나 바꾸지 않고 부르다 보니 이러한 과오를 인정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발생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주님께서는 한국 CCM을 다시 사용하시고자 하실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음악 사역자들에게 더 큰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나 만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패역한 일들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실지 저는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잃는다고 할 때에 그 책임을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돌릴까요? 또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사탄의 사상이 포함된 곡을 노래하며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뉴에이지 음악이 크리스찬 음악으로 둔갑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 묵인하고 덮어두고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악한 사탄의영이 음악을 통해 크리스찬을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며 교회안에서 이런 뉴에이지 음악은 철저히 선별하고 분별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껏 잘못 사용되어온 뉴에이지 음악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에 대하여 찬양에 있어서도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결론

뉴에이지 음악의 경우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영성을 키우게 한다는 미명아래 온갖 영적으로 악한 것들로 조합하여 만든 치명적인 독약임을 크리스찬들은 깨달아야 하며 이성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로 인간의 영혼을 부지불식간에 병들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뉴에이지 음악은 음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의 사상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이버마약과 일맥상통하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에 많이 심취되어온 사람이라면 이미 이러한 사이버마약과 유사한 부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져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많이 병들고 쇠약해 졌을 것입니다.

(참조 : http://blog.daum.net/paul_s/8896172)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릎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반기독교 적 사탄의 사상이 가득한 뉴에이지 음악을 가져와서 그들이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 입니다.

말 1:8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 1:13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New Age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지 구분하고 분별해야 할 때 입니다.

베드로전서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 악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한시라도 무너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영적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늘 승리하고 분별된 삶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9-22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항상 깨어 부지불식간에 허물과 죄와 죄악을 짓지 않고 예수님 닮아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기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뉴에이지 음악과 사이버마약인 아이도저 와의 유사성

1) 사이버 마약 에 관한 내용

- n 국내에 2009년도 초반에 소개되어 급속하게 국내에 퍼진 사이버 마약이라고 불리는 음원 파일들로 구성된 아이도저는 항불안성(Antianxiety), 항우울성(Antidepressant), 처방성(Prescription), 정화(Pure), 마약성(Recreational), 진정제(Sedative), 성적 흥분(Sexual), 수면(Sleep), 스테로이드(Steroid), 각성제(Stimulant) 등 10개 세부 항목으로 나뉜 73개의 음원 파일이 들어 있고 Reset 이라는 하나의 음원으로 되어 있음
- n Reset 이라는 음원은 **20~30분 정도 되어 있는 음원으로 아이도저 파일 한 개를 들을 경우 반드시 리셋을 들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며**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발작 및 헛소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중독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n 소리(음원)는 (주파수적 특징+ 진폭)으로 구성된 성분으로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주파주적 특징은 인간의 뇌파를 통해 인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무서운 기능이 숨어 있으며 사이버마약은 **뉴에이지 음악의 멜로디의 특징과 같이 반복적 멜로디를 사용하여 최면 상태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며 이러한 멜로디는 보통 30분 정도까지 사용함**
- n 이러한 내용과 일맥 상통함은 명상, 각성, 루시드드림 (꿈속에서 인지를 하며 또 꿈을 꾸는 것 □ 인셉션 이라는 영화의 컨셉과 유사) 또는 Hand of God 이라는(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독성이 있다고 설명) 것을 통해 뭔가 신의 경지를 느껴볼 수 있다거나 Gate of Hades 를 통해서 지옥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 등이 **사이버마약 이라고 하는 아이도저는 뉴에이지의 음악의 목적과 너무나 유사하며 이러한 수행을 위하여 증폭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사탄의 도구라고 보여짐**

2) 사이버 마약 에 대한 경고

- n **소리(음원)으로써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마약의 느낌, 성적자극의 느낌, 환각 효과를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사이버 마약은 2009년도에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인간의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음**
- n 소리(음원)의 노예 혹은 흔히 말하는 정신이상자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호기심에라도 들어서 중독되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스스로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임을 알고 최악을 짓지 않아야 함**

많은 기독교인들이 뉴에이지(New Age)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 새로운 철학적 사상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막연하게 반 기독교적인 사상 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여 글을 올려 놓게 되었습니다.

1 뉴에이지(New Age)란 무엇인가 ?

1)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이란?

20세기 후반부터 발전 되어 온 비종교적인 성격의 서양의 영적 사상 운동

(그러나 뉴에이지 수행은 각종 여러가지 종교의식을 모두 섞어놓은 형태임)

2) 뉴에이지 사상의 중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영성을 창조하기 위해 제한적 경계를 두거나 여러 교리들(dogmas)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며 동서양의 영적인 부분과 형이상학적인 전통 위에 그려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조심리학(self-help Psychology), 동기부여심리학(Motivational-Psychology), 온건강(holistic health), 초심리학(parapsychology), 자각의식의 탐구, 양자물리학 등으로부터 기인한 기운(영향력)을 주입 하는 것으로 이것은

총괄적이며 다원론적인 것이 뉴에이지 사상의 중심적 가르침임

(용어정리)

Holistic health : 건강을 육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Parapsychology(초심리학) : 천리안, 정신감응과 같은 초자연적(초능력) 현상을 다루는 것

3) 뉴에이지 운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인간의식을 확장시켜 신비적인 것에 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의식 확장을 위해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교적인 요소들과 과학, 심리, 기술, 정신분석 등을 혼합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분산되는 특징을 보임

4) 뉴에이지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인가?

1 “a holistic worldview” 의 특징을 갖음 : 이러한 특징은 정신, 몸 그리고 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전 우주에 걸쳐 단일 되고 통일성을 갖는다는 특징을 갖음

- | Worldview 를 창조하기 위하여 여러 시도함 : 과학과 영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worldview” 를 창조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Worldview의 창조를 위해서는 과학과 의사(擬似)과학의 형태를 깨닫고 이를 통해 worldview 창조를 시도하는 것이 주요 특징임
- | 여러 종교와 샤머니즘, 철학 등을 모두 포함함 : 샤머니즘적 요소, 무신론, 일원론, 범신론, 만유내재신설(萬有內在神說), 과학과 가이아(Gaia)철학을 결합시킨 다신교, 고대천문학(archaeoastronomy), 천문학(astronomy), 인류생태학(ecology), 환경보전주의(environmentalism), 가이아 가설(Gaia Hypothesis), 심리학(psychology), 물리학(physics) 이러한 모든 사상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범종교적 다원주의 및 철학, 과학 모든 것을 섞어 놓은 특징을 가짐**
- | 뉴에이지가 참조하는 영성은 기본적으로 지구, 달, 그리고 우주 밖에 대한 신화적인 묘사 등의 **점성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큰 특징을 가짐**

(용어정리)

- | **의사(擬似)과학** : 점성, 연력 등을 추구하는 것
- | **일원론(monoism)** : 모든 것은 하나 라는 종교관 (일원론에서 범신론과 범내신론을 끌어냄)
- | **범신론(pantheism)** : 자연과 우주만물을 모두 신으로 여기는 종교관
- | **범내신론 (panentheism : 만유내재신설(萬有內在神說))** : 신은 만물 안에 존재하고 만물은 신이라는 것
- | **가이아(Gaia)철학** : 지구는 자체로 거대한 생명체이며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최적조건을 유지해 주기 위해 언제나 자기 조정하며 스스로 변화 하는 것 (환경문제 및 환경운동가 들의 기본이 되는 과학/철학)
- | **다신교(polytheism)** :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변화가 다양한 신의 지배 아래 있다고 믿는 신앙
- | **샤머니즘** : 엑스터시(황홀경)에 빠진 이상상태에서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접촉 교섭하여, 점복예언, 치병,제의 사령의 인도 등을 행하는 주술종교적 직능자인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현상 (한국에서의 경우 무속,무당)

5) 뉴에이지의 수행과 철학

뉴에이지의 수행과 철학들은 동아시아의 종교들과, 그노시스파(Gnosticism), 신이교(新異敎)주의(Neopaganism), 신사상(New Thought), 강신술, 교령술(交靈術)(Spiritualism), 접신(接神)론(Theosophy), 보편구제설(Universalism), 서양의 마술비법 등의 강력한 영향력과 함께 불교, 도교, 중국의 여러 전통종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등의 세계의 주요 종교들로부터 영감(靈感)이 형성되는 수행 철학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교,주술적인 것을 포함해 미신적인 것까지 모두 뉴에이지 수행에 포함시키며 이러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영감을 형성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음)

(용어정리)

- | **그노시스파(Gnosticism) -영지주의 (靈智主義)** :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했던 종파의 하나 로 기독교와 다양한 지역의 이교 교리(그리스, 이집트 등)가 혼합된 모습을 보이는 이단 (플라톤),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이 "앎(그노시스· gnosis)"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함**
- | **신이교(新異敎)주의 (Neopaganism)** : 유럽 초기 문화권에 있던 자연 중심의 종교를 토대로 생성된 다양한 신앙, 위카(Wicca)라는 마법숭배 신앙이 있고 **신이교 집단으로는 드루이드파(Druid)**가 있으며 이들의 신앙과 종교의식은 **Celtic(켈트족)의 종교의식**을 재생함
- | **신사상(New Thought)** : 신사상(**인간의 신성(神性)을 강조**)하고 올바른 사상이 질병과 과오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철학의 하나).

- | 강신술(降神術), 교령술(交靈術)(Spiritualism) : 영매를 통해 죽은 사람의 혼령이나 먼 곳에 있는 생령을 데려온다고 하는 술법이며 신이나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등을 사용하며 한국에서 말하는 박수, 무당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샤머니즘과 다르게 조직적으로 심령과학분야로 접근 하려고 하며, 염사(念寫) · 심령사진(心靈寫眞)등이 있다.
- | 접신(接神)론(Theosophy) : 여러 신을 맞이 하는 의식에 대한 사상을 갖는 것
- | 보편구제설(Universalism) : 만인은 결국 구제 된다는 설

많은 기독교인들이 뉴에이지(New Age)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 새로운 철학적 사상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막연하게 반 기독교적인 사상 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여 글을 올려 놓게 되었습니다.

2. 뉴에이지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이아 이론이란?

1) 가이아 이론의 기원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 1978” 행성학자 제임스러브록이 그의 저술에서 주장한 가설임

- | 가이아(Gaia)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 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를 나타내는 것
- | Gaia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토양, 대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
- |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 작용하는 생물체로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
- | 이 이론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대 지구온난화 현상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이론이 됨

2) 가이아 이론의 핵심

자기 조절 능력 :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외부 환경으로 부터 자유 에너지를 섭취하여 생존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가졌다 라는 것

살아있는 지구 : 지구의 생물권,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살아있는 실체

항상성 : 가이아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스스로 적당한 물리적, 화학적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Feedback 장치나 시이버네틱 시스템을 구성한 총합체이고 능동적 조절에 의한 비교적 균일한 상태의 유지를 항상 성 유지 라 함

- | 만약 대기중의 산소가 지금보다 5~10%만 늘어나도,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모든 생명체는 멸종하며, 반면에 5~10%만 줄어들면 미생물체 이상 규모의 생물체는 호흡하며 살 수가 없음. (적어도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함.)
- | 산소 농도를 수억년이 넘도록 일정하게 유지 시킬 수 있는 근본 이유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물권(바이오스피어:biosphere)이 대기권, 암석권, 수권 등 지구의 다른 부분들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절묘한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러브록은 이러한 이유로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이론을 내놓음)

3) 진화론에 관점을 두는 가이아 이론과 환경문제

- | 가이아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물권의 환경을 조절하는 통제자

- | 20세기 이후 환경 오염이 지구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인간이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때 생물체의 자기 조절 능력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함
- | 이는 또 다른 생명체의 탄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화론적 가설을 내세워 환경문제로 접근함

많은 기독교인들이 뉴에이지(New Age)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 새로운 철학적 사상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막연하게 반 기독교적인 사상 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여 글을 올려 놓게 되었습니다.

3. 뉴에이지(New Age)의 기원 및 역사

1) 점성학이 기반을 둔 뉴에이지(New Age)의 개념

뉴에이지의 개념은 점성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대는 새로운 시대 (New Age)라고 부르며 이러한 말을 점성학적으로 이야기 하면 현대는 점성학에서 말하는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New Age 혹은 물병자리(Aquarius)시대 라고 함

- | 태양과 여러 행성에서 일어나는 회전 순환 운동이 한 궤도를 완전히 마치려면 26,000년의 시간이 소요됨
- | 이러한 궤도를 황도 라고 하며 이는 다시 12좌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양에서 이야기 하는 별자리를 의미함 (사자, 게, 쌍둥이, 황소, 양, 물고기, 물병, 염소, 궁수, 전갈, 천칭, 처녀로 황도 12궁)
- | 한 개의 좌는 다른 좌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2,100 년이 걸리는데 점성술에서는 이것을 Age라고 부르며 한 세대 혹은 황도라 함
- | 현대는 황도의 11번째 좌로써 물고기자리에서 물병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며, 황도의 11번째 좌로써 한 남자가 오른손에 물병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 된다고 함
- | 물병자리 시대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정신적 갈증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물병으로 상징되고 인간 영혼의 참 자유를 표현하는 때 라는 것
- | 점성학에 의해 양 자리는 성부의 좌(구약), 물고기 자리는 성자의 좌(신약), 물병자리는 성령의 좌(현대)로서, 뉴에이지는 새로운 영적 변형을 나타낸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2) 뉴에이지(New Age)의 개념 및 이를 발전시켜온 사람들

뉴에이지의 길을 닦아 놓고 개념을 발전시켜온 사람들은 모두 이교도 적이거나 신비주의 등의 반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며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전반적으로 여러 종교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 및 범신론적 다원주의 성향을 띄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뉴에이지의 개념과 사상적인 토대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아래의 인물들이 있다.

I Emanuel Swedenborg (1688□1772)

스웨덴 과학자로서 그는 기독교 신비주의 종교적 체험을 자신을 위해 헌신한 후에 신비주의 종교적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하고, 천사, 마귀 그리고 각종 영(靈)들과 교제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주제들에 대하여 출판하였다

I Franz Mesmer (1734□1815)

magnets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던 사람 으로 동물의 최면술(Animal magnetism)의 힘은 인간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함

I Helena Blavatsky (1831□1891)

신지학회의 창시자 이며 그녀는 접신(接神)론 또는 신지학(神知學)의 종교적 운동을 전파시켰다.

신지학은 그 자체로 **동양 종교 성향의 힌두교 불교와 함께 서양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로 섞어져 있으며 불교의 환생과 카르마(karma, 業)이론을 믿으며**, 이 협회 3대 회장 A.베일리가 뉴에이지 운동으로 보급 전파하였다.

I George Gurdjieff (c. 1872□1949)

The Fourth Way 철학의 창시자,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영적 가르침을 전달함 (**마찬가지로 다양한 혼합 종교 성향**)

The Way of the **fakir** (Sufi tradition- self-mastery)

The Way of the **monk** (Christian and Buddhist traditions, amongst others)

The Way of the **yogi** (Hindu and Sikh traditions)

Fourth Way was a quicker means than the first three ways

I Drury, Indian Swami Vivekananda (1863□1902)

뉴에이지 운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범신론(Vedanta)철학을 신봉한 사람으로 19세기 후반 서양에 힌두교에 대한 영향력을 준 인물

많은 기독교인들이 뉴에이지(New Age)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 새로운 철학적 사상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막연하게 반 기독교적인 사상 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여 글을 올려 놓게 되었습니다.

4. 뉴에이지(New Age) 운동의 근원 및 역사

1) 19세기 초 형이상학적인 운동 및 근원

I 형이상학적인 운동

- n Spiritualism(강신술, 교령술(交靈術)),
- n Theosophy(접신(接神)론),
- n New Thought(신사상),
- n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지압요법)과 자연요법의 운동 (약재의 대안)

I 형이상학적인 운동의 근원

- n 칸트의 선형론(Transcendentalism)
- n 최면술(Mesmerism)
- n 종교신비철학(Swedenborgianism)
- n 다양한 서양의 비법
- n 신비로운 전통(점성술의 신비한 예술, 마술, 연금술, 카발라(신비주의))

I 1888년 Secret Doctrine

- n (Blavatsky □ 신지학의 창시자) 의 책 □ New Age 시대 라는 말을 사용

I 1894년 기독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주간 저널

- n The New Age 라는 제목으로 출판

I 브라운대학 (Brown University) 의 평가:

- n 뉴에이지는 1907년도부터 1922년도까지의 문학과 예술에 있어 shape modernism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2) Contemporary usage of the term (subculture)

I 1960년대의 대항문화(Counterculture)에 기초

- n 1970년도에 존재했던 New Age의 subculture 는 1960년대 대항 문화에 기초하고 맞춰져 왔다.

l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New Age시대 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

- n New Age 저널이라는 월간지에 의해 반향 되어졌으며
- n 수천개의 작은 형이상학 서점들과 선물상점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 n 수천개의 작은 형이상학 서점들은 스스로 “New Age 서점” 이라고 정의 함

l 1987년 미국의 매스 미디어는 대중화를 이룸

- n 수천개의 작은 규모의 활동들이 조화롭게 집중되어 점차 큰 규모의 활동으로 조화롭게 집중됨
- n 그 결과 the American mess media는 더 나아가 대중화 하였음

l 대중화된 뉴에이지의 영성 수행 방법

- n 명상(Meditation), 채널링, 크리스탈 치료, 유체이탈
- n 심령적 경험(psychic experience), 온건강, 심플 리빙, 환경보전주의 활동
- n 지구의 불가사의 유적, 고대 우주비행사들, 외계인의 삶, UFO, Crop 서클, 환생을 믿음

(용어정리)

l 채널링(Channeling) : 그대로 TV 채널을 돌리 듯이 영적 주파수를 맞추어 원하는 영(靈)들과 교신(交信)을 하는 것

- n 교신 하는 영들은 깨달음에 도달하여 장구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영들인데 부처처럼 열반(涅槃)의 경지에 도달한 영들과 교신 하는 것을 채널링 이라고 함.
- n 이런 채널링을 통해 '우주인'과도 교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우주인들이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창조된 존재 곧 우주인의 창조물이라고 하고 채널링은 저런 우주인의 창조 예지를 나누어 받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함
- n 이런 채널링은 뉴에이지 영성운동들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음.

l 수정치료(Crystal Healing) : 수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l 심령적 경험(psychic experience) :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읽는 능력

l 검소생활(Simple Living) : 검소한 생활을 통해 결국 부처와 같이 열반에 오를 수 있다는 것

l 미스터리 서클(Corp Circles) : 농작물에 보여주는 미스터리 서클 모양

l 지구의 미스테리 (고대 유적지) : 지구에 있는 미스테리한 유적지들 것들 (스톤헨지, 모아이, 버뮤다삼각지 등)

Stonehenge and other ancient sites are revered by many who practice New Age spirituality

(스톤헨지와 다른 고대유적지들은 많은 뉴에이지 수행가에의해 점유되어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뉴에이지(New Age)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 새로운 철학적 사상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막연하게 반 기독교적인 사상 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여 글을 올려 놓게 되었습니다.

5. 뉴에이지(New Age) Lifestyle 및 음악

1) 뉴에이지의 라이프스타일 (New Age Lifestyle)

- n 뉴에이지 영성에 대한 부분은 문학 및 다양한 분야들과 틈새 시장들을 이끌고 있음
 - u 뉴에이지 가게를 운영하며 책, 음악, 수공예, 약재품들에 대한 공급 등을 하고 있음
 - u 전세계에 퍼져있는 고객들은 페스티벌 이나 장(fairs)을 통해 모이는 것이 일반적임
 - u 책, 잡지, 신문, TV, 점성학 책에 의해 대중매개체와의 회의를 갖음
 - u 전화, 강연, 연수회, 정치적 제휴 등을 통해 서로 통합되고, 확산됨

2) 뉴에이지 음악 (New Age Music)

- n 현대인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파고들어 확산되고 있으며 클래식, 재즈, 팝뮤등과 조화를 이뤄 음악치료, 스트레스 해소, 요가 명상음악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 u The style began in the 1970s with the works of [free-form jazz groups](#) recording on the ECM label;
 - u [New Age 음악 스타일](#)이라는 것은 1970년도에 [자유형태 재즈 그룹들이](#) ECM 레이블로 레코딩 하면서 시작됨
(Brian Eno(엠비언트 음악가), Daniel Kobialka (클래식 전위파 음악가))
 - u 1970년도 초반에는 대부분 Acoustic , Electronic 악기를 사용하는 연주 스타일이었으며 이후에는 뉴에이지 영성찬양을 위해서 신디사이저를 사용한 공간(우주)음악과 Acoustic 악기 연주 스타일로 사용되었음
 - u 1980년도 [조지윈스턴, 윌리엄에커맨이 주축이되어 뉴에이지 음악 전문 레이블 '윈드햄 힐\(Windham Hill\)' 설립](#)
- n 뉴에이지 음악의 본질은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뉴에이지 수행을 위한 것이 목적
 - u 오쇼 라즈니쉬의 비밀의 책 II (The book of the secret Vol II) 이라는 책에 설명된 [뉴에이지 음악 설명](#)
 - u “음악 속에 명상이 없다면 음악가는 단순한 테크니션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위대한 테크니션을 될 수 있어도 음악 속에 영혼을 담을 수는 없다. 음악가가 깊은 명상가일 때 영혼은 음악을 통해 흘러나온다.”

[명상은 기독교의 묵상과는 다르며 자신이 수행을 통해 신의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명상임]

많은 기독교인들이 뉴에이지(New Age)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 새로운 철학적 사상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막연하게 반 기독교적인 사상 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여 글을 올려 놓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장에 나열해 놓은 뉴에이지의 철학 및 우주론의 경우는 뉴에이지 사상에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하나하나의 사상들이 어떠한지 잘 나열하고 있으므로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 이를 통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했으며 악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 뉴에이지(New Age)의 철학 및 우주론

n New Age 사상에서의 Theism (유신론/일신론)

하나님(God)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생각, 많은 방법들로 이해 되었으며 인체모형팬텀 신(god)으로 대신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간의 (god)형태를 대신하여 추상화 한 것이 God(신)이라고 이야기함)

n New Age 사상에서의 Spiritual beings (영적인 존재)

- u 여러 신들(gods), 데바스(devas), 천사, 승천 도사(Ascended Masters)들, 정령들, 귀신들, 요정들
- u 영적 존재는성령가이드 및 사람들을 영적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외계인**

n New Age 사상에서의 Afterlife (사후/내세)

- u 죽음 이후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의식의 형태가 지속됨
- u 뉴에이지의 환생 믿음은 불교나 힌두교의 환생보다 다른 모습임
- u 뉴에이지의 종교적 믿음은 영혼(Soul)은 영적영역(spiritual realm)에서 탄생하거나 아주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탄생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끝내고자 하는 더 이상의 욕구는 없음
- u 또한 이러한 믿음은 개인은 어디에서 환생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함
- u (신(God)/우주)는 언제나 각 사람마다 최적의 환생으로 선택함
- u 지옥에 대한 믿음은 경우 전통적인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알고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님

u 사후에 대한 보편구제설을 믿는 보편주의자(Universalist)들의 관점은 일반적임

n New Age 사상에서의 Age of Aquarius (물병자리의 시대)

- u 점성술가들은 물병자리 시대로 그려지는 현재 시대는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들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음
- u 물병자리의 시대에 대한 주장 중에는 1960년대 초가 실제로 물병자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큰 논쟁의 여지가 있음
- u 일반적인 주장은 여러 발전들은 물병자리의 시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인권, 민주화, 기술의 혁명, 전기, 컴퓨터, 항공분야 등에 제한이 없다는 것임
- u 비법을 전수 받은 사람들의 주장은 물병자리의 시대에는 자각의식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함

n New Age 사상에서의 Astrology (점성학)

- u 천궁도와 12궁도는 개별적 존재(사람으로서의 존재), 사람의 일들, 다른 지역 물질 들에 대한 이해, 해석 그리고 이루어지는 정보들을 사용하게 됨.

n New Age 사상에서의 Teleology (목적론)

- u 삶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우연의 일치로 발생하는 것들은 영적 의미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함)
- u **모든 만물은 하나님(God)과 하나님과 동등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음**
- u 우주의 법칙의 목적 그리고 모든 요소들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협력하여 목적을 향해감

n New Age 사상에서의 Indigo children (인디고 아이들)

- u 아이들은 이전 세대들 보다 더욱 발전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남

n New Age 사상에서의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사람들간 대인관계)

- u 스스로 혹은 관계를 갖고 배울 기회는 건강해 질 때까지 반복되도록 운명되어짐
- u 뉴에이지 운동은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수용함
- u 모든 사회 정세 속에 영적 개발의 차원에서 종교와 성(性)적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완벽하게 수용되어짐,
- u **이성애(異性愛), 동성애(同性愛)[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兩性愛), 그리고 성정체자이든 아니든 모두 수용함**

- u 시스젠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보유자(Intersexual) 모두 수용함
- u 많은 뉴에이지 수행가들은 탄트라 요가와 같은 양상으로 탄트라 섹스를 수행함

(성(性)적인 부분에 있어 극도의 타락함을 보여주며)

(이를 뉴에이지 수행이라는 명목 아래 극도의 타락함을 추구함)

n New Age 사상에서의 Intuition (직관력)

- u 중요한 지각작용의 양상 □ 어느정도 엄격한 합리주의 자의 Offset □ 심리학자 Carl Jung의 작품에서 기록됨

n New Age 사상에서의 Optimism (낙천주의-긍정적인 사고방식)

- u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인(주장)에 의해 지지 되어짐
- u 이에 대한 컨셉은 생각 창조(Thought Creatres)에 근거를 두고 있음
- u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와 삶의 견지에 있어 뭔가 하나를 주의하여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반잔의 유리잔의 물은) 실제로 변형하기 시작하고 실현시키게 됨
- u 확실한 것은 비판적인 대부분 사람들과 고도의 영적 자각을 한 사람과 함께 하면 고도의 영적 전체 인원을 갑작스럽게 변화 시킴
- u 인간은 우리자신을 치유할 긍정적 창조활동과 일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서로간에, 선각자)

n New Age 사상에서의 Human Potential Movement (인간 잠재력 운동)

- u 인간의 생각은 지배적인 물리적인 현실 조차도 능가하는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n New Age 사상에서의 Spiritual healing (영적 치료)

- u 인간은 같은 잠재적 치료능력을 가지고 있음 (터치요법과 같은 잠재적 치료능력)
- u 치료능력은 터치하거나 떨어져서도 다른 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음

(인간이 이와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독교의 신유은사 사역과 정반대 됨)

많은 기독교인들이 뉴에이지(New Age)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 새로운 철학적 사상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막연하게 반 기독교적인 사상 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여 글을 올려 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 설명해 놓은 뉴에이지의 종교 과학관의 경우 신비주의적 과학관을 도입시켜 종교관으로 발전을 시킨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과거 New Age 도입 시기에는 또 하나의 사회 문화적인 사상과 철학, 예술적인 문화적 측면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성향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뉴에이지(New Age)의 종교, 과학관

n New Age 종교 과학관에 따른 Eclecticism (절충주의)

- u 뉴에이지 영성은 각개인들의 영적 수행과 철학의 접근 방식에 의해 개별적으로 특별한 성격을 가지게 됨.
- u 종교적 교리나 주의를 거부함

n New Age 종교 과학관에 따른 Matriarchy (모계 가족제)

- u 영성의 여성형 (신성의 여성 이미지를 포함) ,
- u (영지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Aeon Sophia 와 같은 여성)
- u 영성의 여성형은 기존에는 가부장적 종교들에 의해 반대되었음

n New Age 종교 과학관에 따른 Ancient civilizations (고대 문명들)

- u 아틀란티스(Atlantis), 레무리아(Lemuria), 뮤(Mu) 그리고 다른 잃어버린 땅들은 존재했음
- u 크리스탈 해골과 같은 유적과 스톤헨지나 기자(Giza)의 거대한 피라미드 등의 건축물들은 남겨졌음

n New Age 종교 과학관에 따른 Psychic perception (심령 인식)

- u 특정 지리적 위치가 발산하는 심령에너지를 발산
- u 전세계적으로 이교도들 안에서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음

n New Age 종교 과학관에 따른 Eastern world practices (동양 세계의 수행)

- u 명상, 요가, 탄트라, 중국 의학, Ayurveda, 무술, 태극권, 파룬궁, 기공,
- u 마사지, Reiki, 그리고 영성 집중에 도움을 주는 다른 동양의 수행들

n New Age 종교 과학관에 따른 Diet (다이어트)

- u 음식은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침; 신선한 유기음식물에 의한 **채식주의적 수행이 바람직함**

n New Age 종교 과학관에 따른 Mathematics (수학)

- u 자연과 수학의 언어는 하나님의 본질을 식별하고 있음
- u (입증 수비학, Kabbalah(밀교), 신성한 기하학 그리고 영지주의)

n New Age 종교 과학관에 따른 Science (과학)

- u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 초심리학(parapsychology), 가이아의 가설 등은 사용되어져 왔으며 **양자 신비주의 원칙(quantum mysticism)을 영적 근본으로 설명함**
- u 저자 Deepak Chopra, Fritjof Capra, Fred Alan Wolf, 그리고 Gary Zukav는, 양자 머신들을 뉴에이지 영성에 접목 , 양자머신은 *What the Bleep Do We Know!?* (2004) 라는 영화에 소개됨
- u 인력의 법칙에도 연결시킨 부분인 New Thought(신사상) 은 *The Secret* (2006). 이라는 영화에 소개 되었음
- u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실성의 원리를 해명하고자 함,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 음파기능 붕괴(wave function collapse), 또는 많은 세상의 평균을 위한 해석 우주안에 모든 물체들은 하나임 (monism), 그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존재감은 끝이 없고 물리적 세상은 무엇이 되는지 믿는 것 외에는 없음
- u 의술에는 치료기법의 터치, 유사요법, 카이로프랙틱, 가설과 트리트먼트를 포함하는 자연요법의 수행 (이는 전통방식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MR 제작 요청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MR제작은 찬송가, 복음성가, CCM 에 한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CCM중에서 힙합, 랩, FreeJazz 스타일 곡 이거나
원곡이 뉴에이지 곡 인경우(예: You raise me up)에는

국내에서 CCM 이라고 이야기 된다 하더라도 제작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제작 요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작 하는 MR은 조건 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업이 따로 있기에 시간을 쪼개고 할애하여 제작을 하고 있기에 MR제작을 요청하시더라도 원하시는 기간을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꼭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크리스찬음악 앨범등에서 구할 수 있는 찬양이나 MR은 꼭 구매하시어 찬양사역자들이 사역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MR을 요청하시기 이전에 꼭 먼저 검색해 보시고 MR 제작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MR 제작 요청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시 아래 사항을 지켜주세요.

1. MR 제작을 요청하시는 찬양 제목 (찬양곡) 명시
2. MR 제작을 요청하시는 찬양 악보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kumaksy@daum.net)

저희는 모든 악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물소리 찬양집을 사용하지만 이런 곡이 아닐 경우에 악보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MR제작을 요청하시는 곡에 대한 악보는 꼭 보내주세요

3. MR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장소

MR 한 곡 만들 때 길면 한달 정도 소요된 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MR 제작 요청하시면 제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MR 제작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MR을 사용하시고 나서 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남겨진 글 한마디는 힘과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행복한 하루 되세요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의 마지막 설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다섯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다섯 종목의 나의 기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르도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열백 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백년, 천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체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를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테반은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일 년, 십 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그 무서운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 마디만 타협하면 살려 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 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게는 팔십을 넘은 어머니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버지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머님이 금지옥엽으로 길러 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 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꼬!
춘풍추우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새어 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버지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내 마음 차마 못할 일이오나,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열 번, 백 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에 네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사이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케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아멘

CCM 음악에 침투한 위험한 세상 음악

블로그 CCM MR 제작과 나눔 http://blog.daum.net/paul_s

저자 I'll be humble

발행일 2014.09.29 20:21:42

 블로그